국립극장 미르
NT OF KOREA MAGAZINE MIR
2019 07 Vol. 354

2019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CONTENTS

03 **받은 편지함**

05 **오브제**
정성으로 복을 담다 보자기 **김보나**

07 **칼럼**
우리는 성인일까요? **최재훈**

SPECIAL

'여우樂락 페스티벌' 10주년 특집

10 **10년을 맞이하며**
여우락이 걸어온 길 **송현민**

20 **여우별 탐방기**
여우락의 숨은 보석, 여우별을 만나다 **안지선**

24 **2019 국립극장 '여우樂락 페스티벌'**
올해도, 여우락에 취하리랏다 **이정연·김보나**

28 **여우락 골라 보기**
여행 타입으로 찾는 나만의 여우락

국립극장 미르

국립극장 월간「미르」2019년 7월호 Vol. 354
National Theater of Korea Magazine MIR I July 2019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지 2019 국립극장 '여우樂락 페스티벌'

발행인 김철호
편집부장 김경남
편집팀장 박혜주
기획 및 편집 이정연·김보나
사진 전강인

ISSN 2287-6383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발행일 2019년 6월 28일
통권 354호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I 전화 02-2280-5816 I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오니트(주) 02-337-3690

VIEW

32 **리뷰**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Ⅳ
'내셔널&인터내셔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소리 찾기' 송지원

GUIDE

37 **국립극장 7월 공연**

38 **7월의 기대작**

42 **국립극장 이용 안내**

MIX

46 **세계무대**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다 이평래

50 **전통 예술 기행**
인도의 전통 무용 '카타칼리'
대사가 담긴 표정, 역사가 깃든 몸짓 전명윤

54 **삶과 노래 사이**
변학도를 통해 다시 읽는 '춘향전'
민중의 열망으로 새로운 세상을 쓰다 유광수

58 **예술서적**
피오나 스태퍼드 '길고 긴 나무의 삶'
나무에 귀 기울여 얻는 위안 박사

NTOK

64 **두 공기: 두고두고 회자되는 공연 기록**
호화로운 올스타 캐스트 '대수양' 설인재

66 **예술배움**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사물놀이반
함께 두드리며 삶을 변주하다 박효린

68 **국립극장 소식**

71 **극장사람들**
시설관리팀 관리실장 전상용
국립극장을 지키는 밝은 미소 김보나

72 **전시의 단면** 하을란·전강인

MIR

10th 여우락 페스티벌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2019.7.10 수요일 — 7.14 일요일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전석 3만원

여기 우리 음樂이 있다

「미르」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민 음악 마리아치' 기사를 보고, 음악을 즐기며 여행한다는 필자의 삶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마리아치 선율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더군요. 이런 여행 상품이 있다면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성민 님(독자엽서)



대개 책에 실리는 칼럼에는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이라 훑어보고 지나가기 일쑤였는데, 5월호 칼럼 '나의 사랑은 우주를 닮았다'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삼키며 읽었습니다.

구근형 님(독자엽서)



'예술가의 초상' 이상준 편을 읽으며 "국악기는 전반적으로 소리 내기가 힘든데, 서양 악기와 달리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소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아마추어 입장에서 무척 와닿았어요. 국악기 개발과 서양 악기와의 협연 등 국악의 폭을 넓히는 그의 활동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진구 님(독자엽서)

「미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엽서와 이메일(magazine@ntok.go.kr)은 물론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국립극장과 「미르」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보내주세요.
글의 분량이나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연락을 위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독자의견 혹은 구독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내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국립극장 일반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National Theater of Korea
Arts Academy



2019 국립극장 계절 맞춤형 취미 찾기 프로젝트

취미의 계절 — 여름

유희 수업

〈모던민화: 여름나기 부채〉
2019.7.18.(목) 19:30~21:30

여름의 작가
서하나

풍류 수업

〈해금, 오늘부터 1일〉
2019.7.25.(목) 19:30~21:30

여름의 예술가
국립국악관현악단 김영미

수강신청

접수기간 2019.6.20.(목)부터
정원 마감 전까지 *선착순 모집
접수방법 국립극장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수강료 강좌당 2만원 *개별 강좌 신청 가능
문의 02-2280-5823

국립극장



보자기

정성으로 복을 담다

예부터 보자기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관혼상제의 중요한 순간까지 우리 삶에 묵묵히 함께해왔다. 이러한 보자기의 쓰임은 재질이나 색, 크기 그리고 그 위에 얹는 금박이나 그림과 같은 문양에 따라 구분됐다. 남다른 구성미를 자랑하는 조선시대 조각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자기 종류 중 하나다. 직조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천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또, 같은 생의 주기에 쓰였더라도 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자기는 민보라 불렸고, 궁에서 사용하는 보자기는 궁보라 불렸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민보의 종류나 매듭법에 대한 기록의 부재다. 반면 궁보의 경우 '상방정례尙方定例' '궁중발기宮中撥記' 등을 통해 보자기를 만드는 법부터 색에 얽힌 사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상방정례'에 의하면 궁보는 1폭부터 8폭까지 그 크기에 따라 용도를 달리했으며, 왕의 전교에 따른 진상품뿐만 아니라 서신이나 물건을 싸고 보관하는 데 사용됐다. 결국 보자기는 민보·궁보 할 것 없이 우리 삶의 대소사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보자기를 가리켜 한자로 복 복福 자를 쓰기도 했다. 여기서 보자기 복袱과 같은 음인 '福'을 쓰는 것은 '보자기에 복을 싸둔다'는 민간신앙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기를 사용한다는 건 정성으로 복을 담거나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바느질하고 염색한 천에 다시 정성을 다해 귀한 물건을 담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순간이다.

글 **김보나** | 사진 **전강인** | 보자기 매듭 **김은혜**

국립극장 예술교육 프로그램
National Theater of Korea Arts Academy

2019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



7기 심화반 수강생 모집

모집개요

교육기간 2019. 8. 31.(토)~11. 17.(일), 매주 토 10:00-15:00(총 13회)
※수료공연: 2019. 11. 17.(일), 15:00, 달오름극장

교육장소 국립극장 뜰아래 연습장 공용 다용도실, 별오름극장(예정)

교육내용 판소리 심화, 창극 공연의 실제

접수기간 2019. 7. 22.(월)~8. 23.(금), 17:00까지

접수방법 ①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교육-교육신청
② 신청하기-신청서 다운로드 및 이메일(edu@ntok.go.kr) 제출
③ 오디션 참여 및 합격 후 수강료 결제
※오디션: 2019. 8. 24.(토), 13:00(예정)

대상/정원 기수강생 및 판소리를 배워본 청소년(초4~중3)/ 15명

수 강 료 35만 원 ※취약계층(정원 10% 이내) 및 장학생(1명) 무료 교육

문 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12



강 사 진

판소리 안숙선 명창, 국립창극단 단원 외

통합예술 최여림(연출), 송재영(연극놀이),
윤혜진(음악감독), 최유리(무용)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수료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 6기 서예민

"처음에는 창극이 100%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친구들한테 창극이 이런 거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6기 정현서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교육-교육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일까요?

괴괴한 소동의 시간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렇게 혼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배우 김윤석의 감독 데뷔작 '미성년'은 늙은 채로 덜 자란 어른들의 뒷걸음질과 자신의 인생과 함께 어른들의 공백까지 껴안으며 익어가는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영화다. 우리는 나이와 경력을 앞세워 가르치고 다그치며, 곧 지워버릴 책임감 없는 넋두리로 진짜 어른의 자리를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어른을 자주 본다. 사실 성숙함은 나이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는 동시에 남의 인생을 쉬 탓하지 않고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성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른도 좀 억울하다. 흔히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관용과 지혜, 여유와 성공을 기대한다. 미혹되지 않고, 관대하며 청춘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이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과는 좀 떨어져서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꺼내 볼 수 있는 실용서 혹은 백과사전 같길 바란다. 그 기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중년은 속물 혹은 꼰대라는 별칭으로 폄하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나이가 든다고 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것이 지겹고 권태로운 사람은 없다. 대개가 꽤나 지긋지긋한 일상을 견디는 것에 익숙해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언제나 첫 경험이다. 단지 곁눈질을 하거나, 길을 벗어나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어느새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져 참을성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모두 매일이 겁나지만 유연하게 숨기는 법에도 익숙해진다.

영화 '미성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낯설지만 성숙한 메시지를 지닌 영화다. 배우 김윤석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인물을 연기하지만 감독 김윤석은 성숙한 어른의 태도를 취한다. 그는 서두르지도 과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는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우리 모두가 끝내 풀어내지 못했던 어긋난 관계의 어려움과 그 지난하고 답답한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한심한 어른의 모습을 전시한다. 동시에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 가공된 극적 장면을 욕심낼 법도 한데, 배우들이 진심을 이야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그의 연출 방식은 매우 사려 깊어 보인다.

연출과 함께 더욱 조용하고 사려 깊은 것은 영화 속 음악이다. 박성도 음악감독이 참여한 '미성년'의 영화음악은 극 속에서 아주 성숙한 어른 같은 역할을 한다. 기타·피아노 등으로 구성된 잔잔한 음악은 단 한 번도 인물의 감정과 표정에 앞서는 법이 없다. 오히려 표정 뒤에 숨어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는 오롯한 내면을 표현해준다. 눈에 띄는 신스틸러가 아니라, 영화의 정서를 아우르는 커다랗고 조용한 주인공 같다. 그런 점에서 '미성년'에서 음악은 겅중거리며 널을 뛰는 다양한 캐릭터 사이에서 가장 성숙한 캐릭터가 된다. 돋보이고 싶은 개인적 욕심 대신 묻혀 있는 화합을 선택한 박성도의 음악이 김윤석의 연출과 하모니를 이룬다. 그렇게 '미성년'의 음악은 뒷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쓸쓸하지만, 또 아름답다.

글 **최재훈** 영화평론가·칼럼니스트. 제37회 영평상 평론상 최우수상 수상 후 '객석'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 각종 매체에 영화 평론과 공연 예술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여우樂락 페스티벌 10주년 특집



10
10년을 맞이하며
여우락이 걸어온 길

20
여우별 탐방기
여우락의 숨은 보석,
여우별을 만나다

24
2019 국립극장
'여우樂락 페스티벌'
올해도, 여우락에
취하리랏다

28
여우락 골라 보기
여행 타입으로 찾는
나만의 여우락

10년을 맞이하며

여우락이 걸어온 길

해를 거듭할수록 색채를 더해온 여우락 페스티벌.
2010년부터 지난 9년간 쌓아온 성장 기록을
여우락을 만들고 지켜봐온 이들의 입을 통해 반추해본다.
국립극장 오지원 CP, 우다슬·이서정·차경연·안지선 PD,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함께했다.

2010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10년, 국립극장에는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어린이 우수공연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우樂락 페스티벌'(이하 여우락)은 그중 한켠을 차지하며 시작됐다. 제1회 여우락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렸으며 공명·노름마치·소나기 프로젝트·들소리가 무대에 올랐다. '타악'을 기반으로 '월드뮤직'을 표방하는 단체들이었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악계는 월드뮤직과의 접속 지점을 모색하고 있었다. 2006년에 문을 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음악가들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2007년 서울아트마켓은 월드뮤직을 구체적인 타깃으로 삼았다. 2010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월드뮤직엑스포WOMEX의 개막 공연을 국악그룹 비빙Be-Being·바람곶·토리 앙상블이 맡기도 했다. 여우락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다.

"초청된 팀들은 해외 공연이 잦은 단체였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했고 그들도 시장의 한계와 공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던 때였죠.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 한국음악을 만들고 소개할 '판'에 대한 바람이 극장 안팎으로 들고날 때였어요. 거기다 여우락만의 특별함을 위해 단체별 90분 이상의 공연과 마지막 날 '잼' 콘서트(합동 공연)를 하기로 했습니다."(오지원)

1980년대부터 진행돼온 '퓨전'이나 '크로스오버' 등의 작업은 음악(국악)과 음악(양악·대중음악)의 섞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문화적 코드로 부상한 일명 '컬래버레이션'은 국악계에서 사람과 그룹, 혹은 그룹과 그룹의 접속으로 가시화되고 있었다. 네 그룹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 선보인 합동 공연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파격이었다. 여우락은 한국음악에 내포된 월드뮤직으로의 가능성을 점치는 자리와 같았다.

2010



2011



2012



"여우락은 축제로서 지향해야 할 기준과 철학을 분명히 제시했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하고,
세계와도 소통해야 한다는 것."
송현민, 2010년 리뷰, 「미르」 2014년 6월호

"저마다의 색깔을 만들어가며 활동하던
민간단체들이 축제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그들의 색깔을 참신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윤중강, 2012년 리뷰, 「미르」 2014년 6월호



'공명'(2011)

✦ ✦ ✦ 2011 ✦ ✦ ✦

여기, 여우락이 있다!

'여우락'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입에 감겼다. 하지만 그 뜻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았다. 여우락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이 이름의 탄생 과정을 물으니 당시 기획을 맡았던 오지원은 "'국악'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채 새로운 한국음악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죠. 카피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와 '당신만 몰랐던 세계 속 우리 음악' 두 가지였어요. 제목을 정할 때, 당시 한 선배가 한 글자씩 따보라는 힌트를 줬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우락'이에요. 처음엔 여우·여자를 연상하거나, '록'페스티벌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어요"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2011년에는 변화에 박차를 가했다. 9월에 진행되던 축제가 공연계의 비수기인 7월로 옮겨졌다. 첫 회를 장식한 공명과 들소리가 재초청됐고, 바람곶·토리 앙상블·양방언이 합류했다. 각 그룹마다 친분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게스트로 초청해 부분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신진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에 소나기 프로젝트의 장재효가 음악감독을 맡아 모난 부분을 다듬질했다.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어요. 밖으로는 누가 보아도 공력과 공신력을 지닌 음악가와 그룹으로 구성됐다고 입소문이 나도록 유도하고, 극장 내에선 여우락이 왜 국립극장에서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해나갔습니다."(오지원)

실제로 1년 사이 여우락은 관객의 입소문을 타고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 패키지 티켓 구매 관객은 2010년 대비 3배로 늘어났고, 전체 객석 점유율도 10퍼센트 늘어난 77퍼센트를 기록했다.

여섯 개의 무대가 펼쳐진 가운데 폐막 공연이 큰 호응을 받았다. 여섯 무대를 빛낸 출연진이 함께한 잼 콘서트였다. 잼 콘서트는 향후 진행될 '여우락식 컬래버레이션'을 예언하는 시간과도 같았다.

✦ ✦ ✦

"올해 라인업 구성이 가능했던 것 역시
여우락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져온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양방언 예술감독이 던진 협업(컬래버레이션)이란
화두에 걸맞은 최적의 조합이기도 했다.
이제 슬슬 여우락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내
본격적으로 브랜딩 해보려는 신호 같기도 했다."
유춘오, 2014년 리뷰, 「미르」 2014년 8월호

2013



2014



2015



✦ ✦ ✦ 2012 ✦ ✦ ✦

여우락은 교감이자 감응이다

1월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의 취임은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전속단체인 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무용단·국립창극단은 그해 가을부터 시작될 '2012-2013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위해 오와 열을 새롭게 다듬었다. 상기한 극장 내의 여러 축제도 정비됐다. 선택과 집중의 노선을 취하던 안호상은 여우락에 집중의 수를 뒀다.

일정·형식·규모 면에서 예년보다 3배 가까이 확장됐다.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미연&박재천 듀오·이자람·정민아·꽃별·연희집단 The 광대·타니모션·민속악회 수리·정가악회·AUX·노름마치 등이 참여해 21회의 공연이 열렸다. 예술감독이 생긴 것도 2012년이 처음이다. 이때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월드뮤직 분야의 대표 격인 양방언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그의 활동은 작곡가 겸 연주자인 양방언과 여우락 모두에게 음악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

"여러 장르의 음악과 음악가들이 교차하는 여우락의 대표 얼굴이자, 참여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것이 감독의 큰 역할이었어요. 음악가와 일일이 대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한국음악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했죠."(오지원)

여우락은 레퍼토리시즌제에는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비시즌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시선과 이목이 집중됐고, 이는 국립극장의 변화를 알리는 전야의 불꽃놀이와도 같았다.

축제의 개막작 '조상이 남긴 꿈'은 프리재즈의 미연&박재천과 안숙선·김청만·이광수가 함께한 공연이었다. 당시 국립극장 소셜 미디어 담당자 이서정은 "관객들이 이 조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지만 결국 열광했던 공연"이라고 기억한다.

이외에도 2012년은 여우락에 첫 야외 공연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아마추어팀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스테이지를 마련해 보다 쉽게 관객과 마주할 수 있는 공연을 추가하기도 했다.



The 광대 '놈놈놈'(2012)


20주년 기념콘서트 '푸리'(2013)

2016



2017



✦ ✦ ✦

"여우락은 한국음악,
즉 우리 음악의 이편과 저편을 모두 끌어안았다.
음악인을 불러 모아
서로 어울리도록 기획하고 조율함으로써
돌연변이와 같은 변종이 태어날 수 있게 자극했다.
분명 누군가는 눈이 맞았고, 사랑에 빠졌으며,
계속 만나게 될 것이었다."
서정민갑, 2017년 리뷰,
「미르」 2017년 9월호





'여우톡-양방언'(2013)

✦✦✦ 2013 ✦✦✦

새롭지 않으면 여우락이 아니다

그간 섭외의 묘를 발휘하던 여우락이 기획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 해가 2013년이다. 당시 여우락 기획팀은 모든 참가팀에게 든든한 지원 약속과 함께 여우락만을 위한 신작 공연을 주문했고, 개인과 그룹들은 새 지음知音을 찾아 그에 걸맞은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2012년에 이어 양방언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7월 3일 황병기의 가야금, 양방언의 월드뮤직, 배병우의 사진 작품이 함께한 '동양의 풍경'으로 막을 열었다. 27일에 막을 내린 '조율'은 국립국악관현악단·한영애·양방언이 함께했다. 푸리·정가악회·The 林(그림)·공명·김정희·앙상블 시나위·김수철 등의 공연이 연일 올랐다. 당시 기획을 맡았던 차경연은 "여우락을 계기로 한국음악의 힘과 매력을 알게 돼 애정이 생겼다"라며 여우락이 대중에게 우리 음악의 퓨전과 크로스오버에 관심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유료 객석 점유율 100퍼센트. 한국음악을 기반으로 한 축제 중 이례적인 티켓 판매 수치였다. 취향에 따라 여러 공연을 합리적인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도 반응이 좋았다.

원일·한승석·김웅식·장재효·정재일·민영치가 함께하며 2000년대를 달궜던 그룹 푸리가 여우락을 통해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홍보팀이던 이서정은 "푸리가 국악계의 원조 아이돌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으며, 2013년에 더욱 높아진 인지도는 2014·2015년 여우락 홍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관객에게 다가가는 방식에도 '기획력'이 더해진 해였다. 2011년에 시작된 무료 야외 공연도 이어졌고, 무대에 오른 음악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 '여우톡talk-여기, 우리 음악 토크가 있다'도 마련됐다. 체험형 프로그램인 '상상톡톡! 소리공장소' '에코 악기 만들기'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에도 관객이 몰렸다. 여우락 대학생 워크숍이 시작되기도 했다. 당시 학생이던 안지선은 "학창 시절부터 국악을 전공하며 체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발판을 만드는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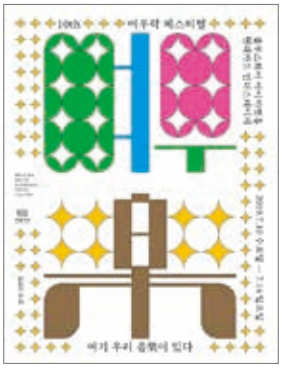
"수평적 지평에서 만나
이종의 음악을 일구는 현장.
음악가들이 만나 펼치는 생산-방법론의
실험실이자 격전지였으며,
그것이 한국음악의 미래적 창작론을 결정짓는
모종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송현민, 2018년 리뷰,
「미르」 2018년 9월호

2018



2019





강태환 '마지막 마스터'(2014)

©노승환(rohsh.com)

✦✦✦ 2014 ✦✦✦

대중의 시선을 끌다

"2014년부터 여우락은 대중음악계로부터도 호기심과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국악은 대중음악 관계자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장르인데, DJ소울스케이프·윤석철 등의 뮤지션들이 함께하니 신선과 파격 그 자체였죠. 대중음악계의 기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김학선)

여우락이 5주년을 맞았다. 양방언·두번째달·고래야·DJ소울스케이프·세컨세션·윤석철·강태환·서영도·한승석·정재일·강은일·이희문·장영규 등이 "여우락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한 시간"(오지원)이었다. 김학선 평론가의 말처럼, 2014년에는 보다 넓은 장르에서 관객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여우락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 11,088명의 관객이 여우락을 보기 위해 극장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2010년 시작부터 대미를 장식한 잼 콘서트는 여우락의 전매특허가 돼 가고 있었다. 그 공법(컬래버레이션)이 10개의 공연에 적용됐다. "여러 음악가의 모임은 곧 여러 장르의 모임이었어요. 그 접점과 균형을 찾느라 기획회의는 늘 끝장토론 분위기였죠."(오지원)

회의가 끝나도 음악가들의 흥분은 가시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여우락이 본인들의 음악 세계에 큰 역할을 했다"(안지선)라고 했으며, 해체 위기에 처한 팀도 여우락에서 다른 팀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재생과 부활의 기회"(오지원)를 갖기도 했다.

이 시기 많은 음악가와 축제는 되풀이되는 기획과 공연에 지쳐 있었고, 여우락은 여기에 일침을 가하며 또 다른 혁명의 뇌관을 터뜨렸다.

2013



2014



2015





죠슬렝 미에니엘·이아람 'Wood & Steel'(2015)

✦✦✦ 2015 ✦✦✦

호불호의 갈림길에서 모색한 한국음악

"2015년은 여우락이 그동안 구축해온 브랜드에,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이 예술감독을 맡으며 인지도가 정점을 찍은 해였습니다."(이서정) 대외적으로는 나윤선과 재즈, 그리고 여우락의 만남으로 비쳤다. 하지만 대중음악부터 아방가르드한 음향 실험까지 두루 갖춘 시간이었다. 나윤선이 허윤정의 거문고와 만났고, 이상은의 노래 사이로 국악기의 음색이 흘렀다. 선우정아는 음향과 음악을 오가는 실험을 했고, 정재국·원장현과 같은 명인들이 국악의 뿌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해외 음악가들이 합류해 여우락의 국제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뉴엔 레(기타)와 바라지, 스테판 에두아르(타악)와 숨[su:m](피리·가야금), 죠슬렝 미에니엘(플루트)과 이아람(대금), 이로 란탈라(피아노)와 정은혜(소리)가 그 역할을 맡았다.

기대와 호응이 높았던 만큼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대중음악이나 재즈에서는 애호하는 예술가의 변신을 기대하는가 하면, 단독 공연으로 그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나고 싶어 한 관객도 있었습니다."(김학선) 특히 해외 음악가와 함께한 무대는 기대만큼 아쉬움이 많았다. "외국 음악가들의 경우 제작진이 아티스트에 대해 공부하며 그 인지도를 노출했지만"(이서정) "국경을 넘는 소통의 한계와 부딪치며 진행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완성도가 나오지 않기도"(안지선) 했다. 하지만 시행착오는 여우락 실험 보고서에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됐다.

유연한 자세로 여러 음악을 넘나드는 음악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가 국악과 꾀하는 변신이 궁금해 여우락에 들렀다가 한국음악의 묘미에 눈뜨는 이들 역시 이해의 또 다른 수확이었다.

2016



2017



2018





이희문·프렐류드 '한국남자'(2016)



노선택과 소울소스 '두 뿌리'(2017)

✦✦✦ 2016 ✦✦✦
여우락이라는 사관학교

"여우락을 진행하면서 여우락은 이러해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여우락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강박했어요. 하지만 2015년을 계기로 이러한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고, 관객에게 조금은 편하게 다가가도 되겠다 생각을 했죠."(오지원)

2016년, 여우락은 그동안 팽팽하게 당긴 힘줄을 느슨하게 내려놓는다. 이해는 당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이던 손혜리가 제작 총감독을 맡았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공연의 판을 짜던 그녀는 그동안 실험과 새로움으로 향하던 여우락표 컬래버레이션에 대중성을 가미했다. 클래식 음악·대중음악·재즈·영화·드라마 등 관객으로 하여금 '골라 보는 재미'가 있도록 라인업을 세웠다. 한결 낮아진 문턱으로 수많은 대중의 시선과 관심을 끈 것이다. 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음악가들을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실험과 생산의 장으로 안내했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에는 그간의 제작자와 목격자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여우락에서의 협업을 계기로 또 다른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해에 인기를 모았던 이희문과 프렐류드의 '한국남자'가 적합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차경연)

여우락이 주목하는 차세대 음악가들로 구성된 '피어나' 공연은 기존에 볼 수 없는 라인업이었다. 신진에 속하는 김희영·예술동인 카인·리브투더·고영열·유지숙 프로젝트·이즘이 함께했다. "여우락을 맡는 기획자에게 가장 큰 난제는 새로운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음악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차세대 신진 예술가들의 무대를 선보였다는 점이 2016년만의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안지선) 어느새 여우락은 음악가의 이력에 일종의 보증서 같은 존재가 됐고, 여우락이 하나의 '사관학교'와도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 2017 ✦✦✦
국악과 인디음악의 교차로

2017년에는 국악을 넘어 영화와 무용, 인디 신까지 폭넓게 활약하는 원일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타악 그룹 공명과 드러머 한웅원이 음악감독으로 원일의 기획에 실행력을 더했다.

원 감독은 자신의 음악 여정과 경험을 여우락의 여러 갈래에 녹였다. "원일 감독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재직(2012~2015) 때부터 여우락의 오랜 동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여우락 정신'을 아티스트들에게 잘 새겨줬어요."(차경연)

민속음악에 젖줄을 댄 바라지부터 국악계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밴드 단편선과 선원들, 노선택과 소울소스 등이 만나며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했다. 잠비나이·마더바이브·선우정아·강이채·두번째달·씽씽·무토MUTO·신현필·블랙스트링 등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이 15개의 무대를 의미 있게 수놓았다.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원일 특유의 음악 만들기"(우다슬)였으며, "손혜리·나윤선 전 감독과는 다른 원일 감독 특유의 스펙트럼"(안지선)이었다.

"역대 여우락 중 국악과 거리가 먼 이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해였습니다. 저 역시 부지런히 드나들며 대중음악계의 동료들을 가장 많이 만났고, 여우락에 참여한 이후 단편선과 선원들·노선택과 소울소스 등의 음악적 차원과 급이 올라갔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우락에서 얻은 기운으로 좋은 작업들을 진전시키고 있어요."(김학선) DJ소울스케이프·윤석철 등이 참가한 2014년 이후로 대중음악 전문가와 관객으로부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예술감독 역시 여우락에 진입한 이상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선수가 된다. 원일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한 '장단 DNA-김용배적 감각'은 '여우락 DNA와 감각'을 보여준 개막작이자 이해의 화제작이 됐다.


2018


2017




2018



안숙선의 지음知音(2018)

✦ ✦ ✦ 2018 ✦ ✦ ✦

여기, 충성 관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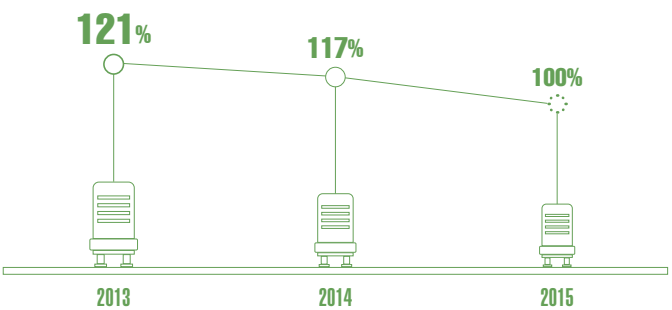
조금은 특별한 사건으로 2018년을 회고해보자. 여우락은 "충성 관객들로 가득 찬 장"(안지선)이 됐다. "관객을 대상으로 이해 여우락 공연을 모두 관람할 경우, 선물을 증정하는 도장 깨기 이벤트를 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관객이 미션을 수행해서 놀랐죠."(차경연)

2018년, 여우락은 한국음악의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라인업부터 대중적 노선과 실험적 보행이 균형의 접점을 잘 찾았다. 1993년 안숙선 명창이 당대 명인들과 함께한 공연부터 오늘날 창작 음악의 불씨가 된 그룹 상상과 바람곶, 그리고 오늘과 미래를 책임질 잠비나이·이아람·김택수 등이 참여해 11개의 공연을 선보였다. "2017년에 원일 감독이 우리 음악으로 실험실을 차렸다면, 2018년에는 관객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접점을 찾았어요."(안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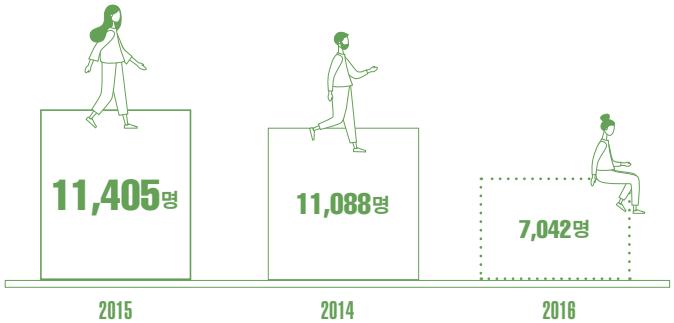
"여우락은 관객뿐만 아니라 음악가에게도 영감을 주는 축제가 된 것 같아요. 국악이 아닌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든 여우락에 아티스트로 참여하면 자신의 음악적 위치를 가늠하고, 한국음악과 연결되는 통로와 출구를 찾게 되거든요. 예술감독의 방향 설정과 관객의 반응 역시 그들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차경연)

10여 년의 역사를 꾸려온 여우락은 음악의 지형도뿐 아니라 관객과 감상의 지도도 바꿔놓았다. 원일이 올린 개막 공연 '홀림'은 2017년 개막작 '장단DNA-김용배적 감각'의 또 다른 버전이었다. 사물놀이의 변신과 동시대적 변용을 목도했던 김학선은 이 공연에 대해 "그 어떤 헤비메탈 음악보다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우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 ✦ ✦ 역대 최고 객석 점유율 Top3 ✦ ✦ ✦



✦ ✦ ✦ 역대 최다 관객 참여 Top3 ✦ ✦ ✦



✦ ✦ ✦ **2019** ✦ ✦ ✦

22세기의 한국음악을 향하는 여우락

이제 필자가 말할 차례인 것 같다. 필자가 여우락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상기한 대로 한국음악이 무서운 속도로 컬래버레이션 작업에 뛰어들던 때였다. 작곡가의 음악이 입력된 악보를 받아, 연주로 출력만 하던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무대를 연출하고 곡을 구성하는 행위가 한창 물오르던 때였다. 여우락은 이러한 이들의 실험실과도 같았다. 실험에는 보고서가 남는다. 오늘날 여우락이 쌓은 그 보고서와 기록은 방대하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음악가나 그룹은 흥하다 못해 국악 그룹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가 하면, 길이 기억됐으면 했던 만남이 여러 이유에 의해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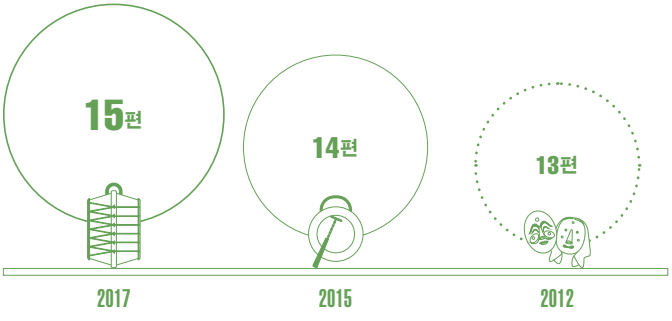
필자는 운이 좋아 여우락 대학생 워크숍의 강의를 맡기도 했고,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여우톡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그때마다 미래 음악가들의 눈빛을 살펴봤다. 그들은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는 여우락의 슬로건을 살짝 틀어 그 눈빛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여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어요'라고. 이러한 여우락의 역사가 공회전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는 여우락이 10주년을 맞는 해다. 해마다 수십 개의 무대를 선보이던 여우락이 1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무대는 4개뿐이다. 기존과 달리 예술감독도 없다. 축소된 듯해 주위에선 아쉬운 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우락을 거쳐 간 음악가들이 이른바 '여우락 정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여우락'이라는 말을 직접 내세우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선보이는 파격의 내면에는 여우락의 경험과 충격이 녹아 있다. "예술은 경험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은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여우락은 제작과 열띤 모객을 통해 이러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김학선의 말에 십분 공감한다. 이러한 체험의 수혜자들이 공연장과 축제로 퍼져, '여우락적 충격'의 발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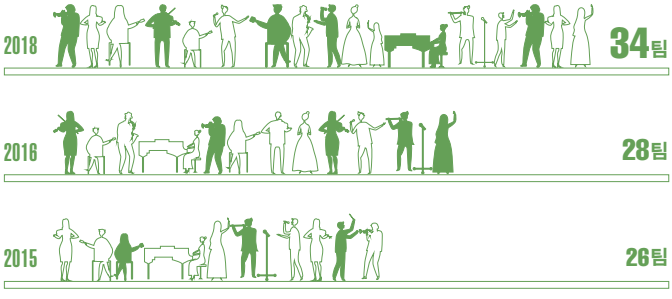
여우락이 10주년을 맞는 지금, 사실 이 기록은 여우락이라는 한국음악 창작 진영의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음악이 걷고 있는 창작 진영을 대변하는 전체이기도 하다. 그만큼 여우락의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실험의 시간이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객석과 책상을 오가고 있다. 급변하는 음악 생태계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 ✦ ✦ 역대 최다 공연 편수 Top3 ✦ ✦ ✦



✦ ✦ ✦ 역대 최다 팀 출연 Top3 ✦ ✦ ✦




DIFFERENT
ANGLES
여우락
여우樂
사진을 찍는
SNS를 고른다
선물을 뽑는다

여우별 탐방기

✦ ✦ ✦

여우락의 숨은 보석, 여우별을 만나다

초록이 남산을 뒤덮고 아스팔트 위로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이 오면
국립극장은 여우락 페스티벌로 떠들썩해진다.
여기에 똑같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시끌벅적한 축제에
활력을 더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여우별'이라 불리는 서포터즈다.
여우락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아 축제의 숨은 보석,
'여우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우락 페스티벌을 빛내는 또 하나의 '별'

2012년은 여우樂락 페스티벌(이하 여우락)에 매우 특별한 시기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우리 음악 페스티벌로 성장하기 위해 꿈틀대던 태동기를 지나 말 그대로 '쑥쑥' 성장한 해이기 때문이다. 기간·장소·참여 아티스트가 2배 이상 늘었고, 첫 예술감독도 선임됐다. 다양한 기획과 콘텐츠의 만남으로 성장한 여우락에 그만큼의 비타민이 필요했으니, 바로 젊은 에너지다. 그렇게 2012년 여름, 여우락 서포터즈 '여우별'이 탄생했다.

'여우별'이라는 명칭은 서포터즈에게 지원의 의미보다는 페스티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2016년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름에 걸맞게 로비와 무대 뒤를 오가며 여우락에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빛나고 있다.

올해의 슈퍼스타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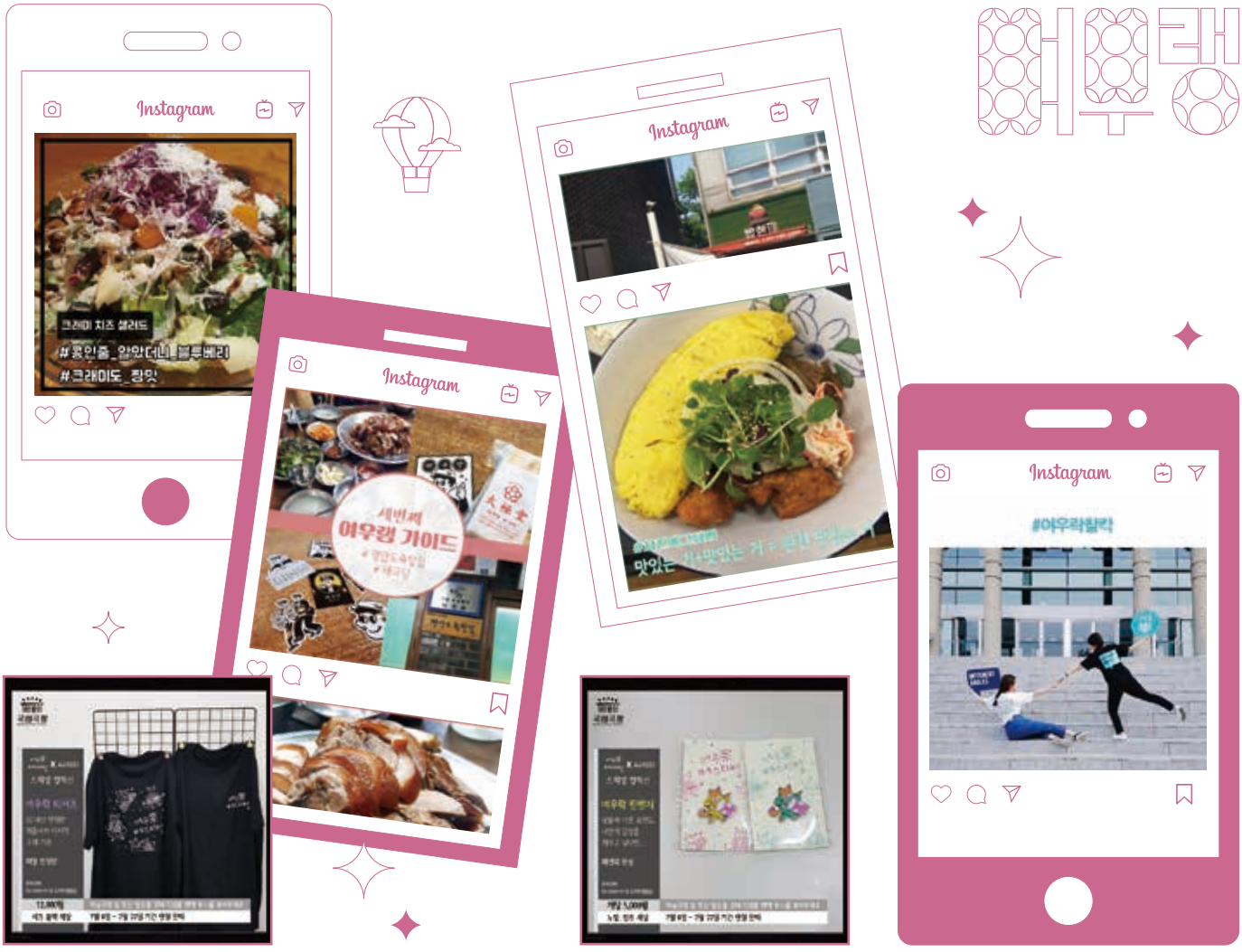
"여우별에 왜 지원했어요?" 대답을 잘 해야 할 것만 같은 이 질문은 여우별 채용 면접의 단골 질문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여우별을 지원했는지, 어떤 것을 얻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매년 기상천외하고 톡톡 튀는 답변이 가득하다.

✦ ✦ ✦

"(심사하고 있는 PD를 가리키며) 저는 언젠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이제는 무대 위가 아닌 뒤를 경험하고 싶어요."

"문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제 또래의 친구들에게 여우락을 알리고, 소셜 미디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5월 중순, 여우별 모집 공고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페이지에 게시되면 다양한 이유와 사연을 가진 예비 여우별이 국립극장의 문을 두드린다. 매년 4~5명을 뽑는데 50명이 훌쩍 넘는 청년들이 지원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여우별의 선정 기준을 밝히자면 음악과 공연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는 성격은 물론이며 체력까지 겸비한 지원자가 우선순위다. 거기다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까지 도맡아 해야 하니 샘솟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따라서 매년 까다로운 조건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여우별은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슈퍼스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극장 여우락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간 여우별은 39명. 이제 막 선발돼 활동하기 시작한 2019년 여우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총 44명에 달한다. 요즘은 공연 기획자나 문화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들의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여우별 출신 중에는 국립극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SM엔터테인먼트·클립서비스·서울시립무용단(단원)·공연 전문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저마다의 몫을 해내고 있는 이들이 많다.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마케팅, 백스테이지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여우별 활동이 그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자양분이 된 셈이다.

여우별은 언제나 분주하다

보통 여우별은 6월 초순부터 여우락의 마지막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 활동한다. 공연 준비 기간인 6월에는 여우락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소셜 미디어에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화수분처럼 쏟아낸다. 가령 2018년 여우별은 '여우락이 뽑은 미슐랭'을 줄여 '여우랭'이란 타이틀을 만들고 국립극장 주변 맛집을 소개했다. 또 여우락 공식 상품을 홈쇼핑 형식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국립극장 오는 길을 영상으로 만들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나 영상으로 검색하고 소통하는 현세대를 저격한 전략이었다. 이럴 때면 '아,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이구나' 하고, 한 수 배우게 된다.

그들의 역할은 이게 다가 아니다. 홍보·마케팅의 최전방이자 최후의 보루인 이른바 '발로 뛰기'도 함께 한다. 2015·2016년에는 서울레코드페어에 부스를 마련해 여우락을 알리고, 매년 연남동이나 한남동 같은









2019년을 빛낼 다섯 여우별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돌며 카페와 음식점에 포스터를 붙이기도 한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쭈뼛거리던 이들이 어느 순간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은 성수동에 홍보하러 다녀올게요!"

뜨거운 여름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우락이 시작되면, 이들은 더욱 분주해진다. 공연장 로비에서 직접 만든 수제 이벤트 물품을 들고 관객에게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고, 아티스트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 분장실도 정비한다. 간혹 자막 오퍼레이터로 변신하기도 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여우락에 꼭 필요한 존재. 여우별이 없었을 땐 어떻게 공연을 운영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면 그 돋보이는 활약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을 뚫은 올해의 슈퍼스타! 올해도 어김없이 여우락을 빛내줄 '별'들이 탄생했다. 2019년 여우별은 6월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들은 예년과 달리 국립극장이 아닌 블루스퀘어와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를 종횡무진하면서 활약할 예정이다. 만약 당신이 여우락을 관람하러 왔다면 공연장 어디선가에서 뛰어다니는 여우별을 눈여겨봐주시길.

여우별을 통해 얻어가는 것들

✦ ✦ ✦

"내 콘텐츠 제작의 시초가 돼줬던 활동은 여우별이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았다. 여전히 그들을 만나면 즐겁다."

2018년 서포터즈 활동을 기록하던 여우별 개인 블로그 마지막 포스팅 내용이다. 여우락 기획자의 입장에서 두 달 남짓 활동하는 여우별을 보면 뿌듯하고 한편으론 책임감도 생긴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그래서 여우별 활동이 끝난 후에도 멘토링·자기소개서 첨삭 등 매년 여우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마련한다. 물론 여우락에 참여한 경험과 함께한 동료 등 저마다의 수확이 있을 테지만, 국립극장에서 마련하는 소소한 프로그램은 한 해 열심히 봉사해준 여우별에 대한 일종의 예우이자 응원이랄까. 이 글을 보고 여우별에 '혹'했다면 주저 말고 2020년에 새로운 여우별에 도전하라. 여우락이 있는 한 여우별도 쭉~ 빛날 예정이니까!

글 **안지선** 국립극장 공연기획팀 PD. 3년째 여름휴가를 여우락에서 보내고 있다.

2019 국립극장 '여우樂락 페스티벌'

✦ ✦ ✦

올해도, 여우락에 취하리랏다

열 살이 된 여우락을 축하하며,
그간 여우락을 이끌어온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역대 예술감독 양방언·나윤선·원일이
각각 이름을 걸고 하루씩 공연을 꾸리고,
마지막 날에는 피날레 무대로
축제를 마무리하는 불꽃을 쏘아 올린다.
진정한 축제의 시작이다.

지난 9년 동안 무려 95편의 공연이 올랐다. 여우락 하면 떠오를 만한 브랜드 이미지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여우락은 그렇게 매해 전성기를 찍어왔다. 올해는 9년의 역사를 압축해 보여줄 계획이다. 이제껏 여우락을 본 적이 없어도, 이번만으로도 충분히 여우락의 정취를 한껏 느낄 만한 무대들이다. 여우락 전체를 관통하면서, 올해 여우락을 대변해줄 다섯 개의 키워드로 어쩌면 최고의 전성기로 남을 2019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노래 ✦ ✦ ✦



두번째달 '달빛 협주곡'(2017)

페스티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모든 관객이 한사람처럼 노래하며 열광하는 모습. 노래는 너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이자, 관중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꾸는 한끝의 전략이다. 그렇다면 여우락은 어떤 노래로 관객을 매혹할까. 2019 여우락의 첫 번째 키워드, '노래'다. 한국음악에서 가창곡을 떠올리면, 판소리나 민요를 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노래엔 또 하나의 매혹적인 장르가 있다. 바로 정가다. 정가를 포함해 우리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소리 장르 세 가지를 모두 모았다.

시작은 '판소리'다. 판소리는 제23회 동아국악콩쿠르에서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을 차지한 실력파 소리꾼 권송희가 참여하는 'Passion & Future'에서 만날 수 있다. '민요'는 '한국남자'로 신선한 파격을 선사했던 이희문이 '13인의 달아나 밴드'에서 부른다. 'after Wood & Steel'에서도 이춘희(경기민요) 명창과 강권순(정가) 명창을 사사해 두 장르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음색을 소유한 김보라의 이색적인 민요를 감상할 수 있다. '정가'를 듣고 싶다면 밀도 높은 소리 공력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정가 소리꾼이자 다양한

하다



음악 장르를 섭렵한 강권순이 참여하는 '13인의 달아나 밴드'를 찾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판소리·민요·정가를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면, 2019 여우락의 피날레를 장식할 '열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를 주목하자. 국악계에서는 드물게 팬덤을 형성하며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김준수(판소리)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채수현, 공명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와의 만남으로 폭넓은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하윤주(정가)가 함께 무대를 장식한다.

물론 그렇다고 여우락에 한국의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음악의 진수는 즉흥에서 나온다. 우리가 시나위의 음악성을 높게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여우락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노래 장르는 그런 한국음악의 즉흥성을 꼭 닮은 '재즈'다. 이는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 바젤의 세계적인 재즈 프로그램 '포커스이어'에 뽑히면서 괴물 보컬리스트라 불리는 전송이가 참여하는 '13인의 달아나 밴드'에서 들을 수 있다. 판소리부터 민요·정가·재즈까지, 이보다 더 이채로울 수 없는 노래. 당신은 어떤 이채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창조 ✦✦✦ 하다

여우락에는 '우리 시대, 새로운 한국음악과의 만남'이라는 지향이 있다. 여기서 '새로운'이 붙는 건, 여우락만을 위한 혹은 여우락을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갈 창조적 음악의 존재 때문이다.

2019년 '창조'의 시작은 이름부터 '여우락 드림오케스트라'로 붙여진 양방언의 여우락 무대를 들 수 있다. 2011년부터 4년간 여우락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무수한 여우락식 창조를 지켜본 장재효와 일본의 실력파 솔리스트들이 참여한다. 한·일의 내로라하는 연주자 10명이 만나 동서양 악기로 상상하지 못했던 조화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이 무대를 두고 양방언은 "이 오케스트라의 향후 활동을 명확히 기약할 순 없지만, 앞으로를 기대하며 결성했다"(2019. 5. 29. 기자간담회)라고 밝히기도 했다.

'창조'라는 키워드를 두고 눈여겨 볼 만한 무대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식 밴드의 탄생을 예고한 '13인의 달아나 밴드'다. 한국음악의 경계에서 누구보다 많은 창조와 실패를 경험하고 목격한 원일이 한국음악에 정통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각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모아 13인의 어벤저스 밴드를 결성했다. 원일을 주축으로 한 이 밴드는 재즈부터 블루스·디스코·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녹이고 섞어, '우리식' 밴드라는 새로운 챕터를 보여줄 것이다.



박은하·김정희·김복만·원일 '장단 DNA-김용배적 감각'(2017)

믿 ✦✦✦ 다

여우락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준말이다. 그렇기에 여우락과 우리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무리 새로움을 창조하고, 경계를 허물더라도 잊어선 안 되는 키워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음악에 정통한 아티스트의 참여는 여우락 안에 진짜 '우리 음악'이 있음을 믿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존재들이 곳곳에 퍼져 있다. 그 예로 '13인의 달아나 밴드'가 있다.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은 박경소(가야금)와 박지하(피리·생황), 대금 명인 원장현의 가계를 이은 원나경(해금), 고故 윤윤석 명인의 아들 윤서경(아쟁) 등이 참여해 우리 음악의 진수를 음악 곳곳에 녹일 예정이다. 음악에 대한 믿음은 'Passion & Future'에서도 볼 수 있다. 오르는 무대마다 우리 장단의 묘미를 보여주는 장재효를 비롯해 한충은(대금)·권송희(판소리)·박세라(태평소) 등이 참여하기 때문. 여기에 믿고 듣는 일본의 실력파 연주자들이 함께해 음악적 깊이와 다양성을 갖춘 '여우락 드림오케스트라'를 보여준다. 우리 음악이란 단단한 골격에 실력파 연주자들의 너른 음악 세계가 더해져 믿고 듣는 '우리 음악'의 오늘과 내일을 발견하게 된다.

'잼' ✦✦✦ 하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여름 저녁, 참가팀들이 모두 모여 풀어내는 '섞임'과 '난장'의 무대가 있었다. 초창기 여우락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인상 깊게 각인됐을지 모르는 순간, 바로 '잼 콘서트'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여우락에서 다시 보고 싶은 공연'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여우락식 컬래버레이션을 예견하는 무대였다"라는 기대와 함께 "한국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였다"라고 평가받은 '잼 콘서트'를 올해도 어김 없이 만날 수 있게 됐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과 에스닉 밴드 '두번째달', 그리고 '유희스카'가 뭉친다. 이들은 공명의 '아리랑'으로 우리 음악의 즉흥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 중 '공명'과 '두번째달'은 그동안 여우락 무대에 가장 많이 오른 최다 출연자이고, '유희스카'는 2018년 여우락에서 신생한 팀이다. 이들은 자신의 대표곡과 함께 세 팀이 모두 어우러진 '잼'(서로의 곡을 바꿔서 연주하거나 새롭게 다 같이 연주함)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음악 특유의 즉흥성이 폭발하는 순간, 아티스트 32명의 색깔을 펼쳐내줄 프리즘 같은 무대를 '열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에서 만나보자.



'잼 콘서트'(2011)

만나다 ✦ ✦ ✦ 그리고 성장하다



킹스턴 루디스카×연희컴퍼니 유희 '유희스카'(2018)

만남은 성장의 지름길이다. 또 다른 세계와의 충돌은 비록 고통을 수반할지언정 세계를 확장하고 새로움을 창출하게 한다. 여우락이 주선한 다양한 만남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따라왔다. 그 성장의 주인공들은 이번 여우락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깨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유희스카'는 스스로를 '양악 풍물패'라 일컫는 스카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와 빨간 양복을 입고 무대를 누비는 젊은 놀이패 '연희컴퍼니 유희'가 2018년 여우락에서 만나 결성한 팀이다. '흥'이라는 정서를 공유하며 엎치락뒤치락 서로를 밀고 당기는 에너지는 '유희스카'라는 신개념 밴드의 무대를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들었다. 여우락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유희스카'는 이번 '열열, 우리 음악이 있다'를 통해 신곡과 함께 귀환한다.

이아람과 죠슬렝 미에니엘도 여우락과 함께 성장한 이색 듀오다. 나윤선은 2015년 예술감독으로 활동할 당시 '재즈 한류의 원조'답게 해외 유명 연주자와 한국 음악가들의 만남을 주선한 바 있다. 그때 만들어진 공연이 'Wood & Steel'이다. 한국의 이아람과 프랑스의 죠슬렝 미에니엘은 동서양의 대표 관악기인 대금과 플루트로 완벽한 듀오를 이뤘고, 이후 꾸준히 교감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축적해왔다. 두 아티스트가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또다시 여우락에서 만난다. 이들의 만남은 개인의 음악적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깊어졌을 두 아티스트의 합동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음악 그룹 나무의 대표이자, 지난해 여우락 음악감독으로 기획자로 성장한 이아람과 인도 타블라·시타르 연주자와 교류하는 등 음악 세계를 확장해온 죠슬렝 미에니엘. 두 연주자의 음악적 고민과 정서적 교감이 함축된 'after Wood & Steel'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2019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4개의 공연이 열린다. 9년의 시간이 농축된 이번 여우락에 팬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불과 57초 만에 매진된 여우락 '얼리버드 패키지I'이 이를 증명한다. 그 열기에 보답하기 위해 60명의 아티스트가 열과 성을 다해 관객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환상적인 추억을 선사할 여우락의 열 번째 무대가 시작된다.

글 **이정연·김보나** 국립극장 홍보팀

2019 국립극장 '여우樂락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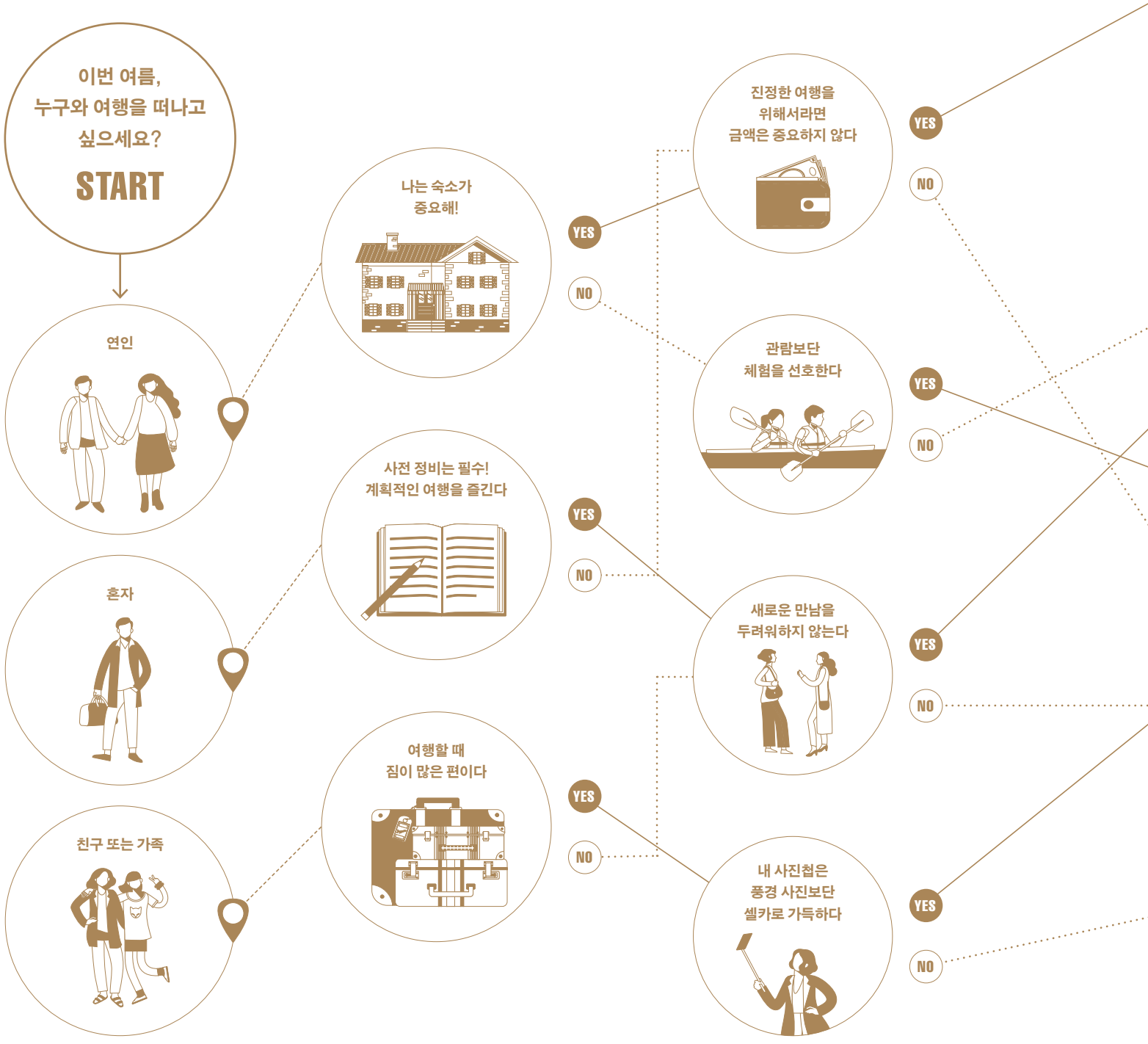
날짜 2019년 7월 10~14일
장소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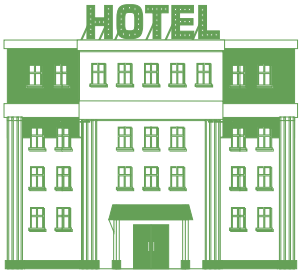
여우락 골라 보기

✦ ✦ ✦

여행 타입으로 찾는 나만의 여우락

1년 중 가장 반가운 휴가 시즌이 다가왔다.
여행도 준비해야 하고, 여우락도 놓칠 수 없는 당신을 위해 「미르」에서 준비한 솔루션!
내게 맞는 '여행 타입'으로 나만의 '여우락'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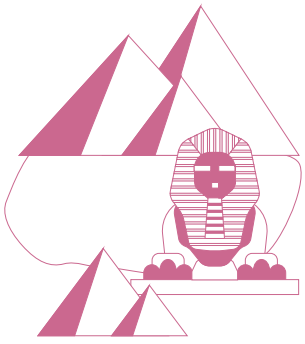


호캉스 타입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선호하는 당신. 모험을 즐기기보단 선구자들이 검증하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현대적 감각을 따르는 타입입니다. 세련된 취향의 당신에겐 크로스오버의 대가 양방언의 여우락 'Passion & Future'를 추천합니다.

→

양방언의 여우락 'Passion & Future'
2019년 7월 10일 |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오직 여우락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우락 드림오케스트라'에서 풍성하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접할 수 있다. 대중에게 친숙한 양방언의 대표곡은 물론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음악을 국악기로 편곡해 선보인다. 양방언과 기획자이자 연주자로 활약 중인 장재효를 비롯해 드럼 연주자 오카모토 켄타, 바이올리니스트 츠치야 레이코 등 한·일 젊은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악기와 서양 악기의 절묘한 조화를 그려낸다.



이색여행 타입

당신의 여행은 특별한 경험으로 가득하겠군요! 남들이 모두 가는 명소보단 처음 가는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걸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나윤선의 여우락, 이아람×죠슬렝 미에니엘 'after Wood & Steel'로 당신의 세계를 확장해드릴게요!

→

나윤선의 여우락 이아람×죠슬렝 미에니엘
'after Wood & Steel'
2019년 7월 10~11일 |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세계적 재즈 뮤지션 나윤선이 선택한 무대. 한국과 프랑스의 두 아티스트가 만나 완벽한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다. 이아람과 죠슬렝 미에니엘이 2015년 보여준 'Wood & Steel'의 확장판이다. 각자의 고유한 예술성 위에 다양한 문화를 접목한 것이 특색으로 한국·아프리카·인도 등 여러 나라 다양한 레퍼토리가 준비된다. 188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숨소리마저 예술이 되는 농밀한 음악을 만나보자.



캠핑 타입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당신. 정해진 코스보다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즐기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벤트가 곳곳에 반짝이는 그런 여행을 꿈꾸는 타입입니다. 모험가 당신에겐 원일의 여우락 '13인의 달아나 밴드'가 딱!

→

원일의 여우락 '13인의 달아나 밴드'
2019년 7월 12일 |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전방위적 음악가 원일과 12명의 개성 강한 아티스트가 발산하는 폭발적 에너지! 원일을 필두로 한 프로젝트 그룹 '달아나 밴드'가 2019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신고식을 치른다. 원일이 직접 사운드 메이킹과 DJ·보컬·타악을 맡고, 이희문·서영도·강권순 등 쟁쟁한 아티스트가 에너지를 더한다. 어디서도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으로 여우락을 거칠게 질주하며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다.



패키지여행 타입

당신은 짧은 일정에도 다양한 경험을 놓칠 수 없는 실속파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완벽하게 일정을 짜야 마음이 놓이는 당신에겐 '열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로 콤팩트하면서도 짜릿한 시간을 준비해드릴게요. 꽉 찬 만족, 보장합니다!

→

공명·두번째달·유희스카
'열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19년 7월 14일 |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밴드 음악, 전통 소리와 연희, 대중성까지 고루 갖춘 무대다. 10년간 관객에게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역대 최다 출연자 '공명'과 '두번째달', 여우락을 계기로 한 팀이 된 '유희스카'가 뭉쳐, 각 팀의 대표곡과 신곡을 선보인다. 특별히 여우락만을 위한 컬래버레이션 무대까지 준비하고 있다. 아티스트 32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음악 세계를 공유하는 '섞임'과 '난장'으로 페스티벌의 정수를 보여준다.

국립극장

10th 여우락 페스티벌

여기 우리 음樂이 있다



양방언의 여우락

Passion & Future

2019.7.10.WED 8pm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양방언과 여우락 드림오케스트라,
여우락을 향한 열정과 미래!

with 정재효, 한충은, 권승희, 박세라, 오카모토 켄타, 무라타 타카유키, 스즈키 히데토시
츠치야 레이코, 테라치 미호



나윤선의 여우락
이아람X죠슬렝 미에니엘

after Wood & Steel

2019.7.10.WED - 7.11.THU 8pm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두 아티스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무대!

with 이원승, 황민왕, 김보라



원일의 여우락

13인의 달아나 밴드

2019.7.12.FRI 8pm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13인의 아해가
'여우락'으로 질주하오!

with 강권순, 이희문, 전송이, 박경소, 박범태, 박지하, 서영도, 원나경, 윤서경, 임용주
최우준, 한웅원



여우락 10주년의 화려한 피날레

열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19.7.14.SUN 4pm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공명 × 두번째달 × 유희스카 잼콘서트
10주년의 피날레, 이보다 신날 수 없다!

공명 with 이지현, 우지혜, 장수현
두번째달 with 김준수, 하윤주, 채수현 | **유희스카** with 천성대

전석 3만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2019. 7. 10 WED — 7. 14 SUN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VIEW

32

리뷰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V
'내셔널&인터내셔널'





RE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Ⅳ **내셔널&인터내셔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소리 찾기'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김성진호를 타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24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연주자들의 기량이 더해져 국악 관현악단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소리의 재발견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2019년 6월 11일 | 롯데콘서트홀

김성진호 항해의 시작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이번 공연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롯데콘서트홀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밖으로 나온 것은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지만 그 외출은 꽤나 성공적으로 보인다. 작년에 남북한의 민족음악을 연주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Ⅱ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2018. 11. 22)과 관현악시리즈Ⅲ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2019. 3. 21)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같은 장소에서 공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어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Ⅳ가 지난 6월 11일 또다시 롯데콘서트홀 무대에 올랐다. 지난 4월 부임한 김성진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내셔널&인터내셔널'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이 주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통해 국악 관현악의 정수를 보여준다'라는 목표에 맞춰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3인의 작곡가 임준희·김대성·강준일 그리고 중국 작곡가 탕젠핑唐建平·미국 작곡가 토머스 오즈번Thomas Osborne의 곡이 김성진호의 출발을 알렸다. 김성진 예술감독은 기존 작품 중에서 네 곡을 선택하고 한 곡을 위촉해 이번 공연을 꾸렸다. 선곡에서 연주로 이어지는 기간이 지극히 짧았던 것에 비해 그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첫 곡으로 무대에 오른 임준희의 국악 관현악 '심향心香'은 지난해 9월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 공연에서 위촉·초연된 곡이다. 황병기의 대표적인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를 오마주해 '침향무'가 머금고 있는 빛깔과 섬세한 향기, 곡의 영성 등이 마음의 향기心香가 돼 퍼질 수 있도록 구사했다. '오마주Hommage'란 감사와 존경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곡은 작곡가 임준희가 황병기 명인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은 곡이다. 초연에서 황병기의 침향이 군더더기 없이 드리워졌다고 한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한층 보강된 음향으로 '침향'이 '심향'으로 마음 깊숙이 침투해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

두 번째 곡은 탕젠핑의 비파 협주곡 '춘추春秋'다. 1994년에 작곡돼 이미 중국에서 비파 협주곡으로 흔들림 없는 위상을 확보한 곡이다. 뮤지컬·드라마·연극·창극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 홍정의가 편곡했다. 국악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는 이번 무대가 초연인 셈이다. 우리 악기로 편곡했지만 중국적인 음향이 잘 살아 있어 탕젠핑의 오라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비파 협연은 중국 중앙음악학원에서 비파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식과 연주력을 인정받은 비파 연주자 위위안춘于源春이 맡았다. 젊은 나이지만 미국의 카네기홀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 등에서 비파의 매력을 알린 전력이 있는 만큼, 그녀의 연주는 관객을 사로잡았다. 연주를 마친 후 객석에서는 거의 3분 가까이 박수가 이어졌고 관객은 비파 연주자 위위안춘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추었다.

세 번째 곡은 김대성의 국악 관현악 '금잔디'이다. '금잔디'는 월북 작곡가 리건우가 김소월의 시에 붙인 가곡 '금잔디'의 서정적 선율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단을 입혀 역동적으로 만든 곡이다. 리건우의 '금잔디' 선율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됐으며 선율적·리듬적 변주가 이뤄져 짜임새 있는 음악이 됐다. 특히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 오래도록 귓전에 남는다. 김대성은 오케스트레이션과 음향의 속성뿐 아니라 장단 이해도가 높아 리듬 구사가 탁월하다. 이 곡은 공연 끝부분에서 앙코르 곡으로 다시 한번 연주됐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신명이 잘 드러난 연주였다.

네 번째 곡은 강준일의 국악 관현악과 해금,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 협



바이올린 협연자 이경선과
해금 협연자 정수년


비파 협연자 위위안춘

주곡 '소리그림자 No.2'이다. 정수년(해금)과 이경선(바이올린)이 협연자로 참여했다. 두 연주자 모두 정상을 달리는 실력파이기에 어울림에 기대가 컸다.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국악기인 해금과 서양 악기인 바이올린은 흔히 비교되는 악기이다. 특히 해금의 소리가 작아 두 악기의 어울림이 어떨까 내심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였다. 음향 장치의 도움도 있었지만 때로는 경합하듯이, 때로는 대화하듯이 두 연주자가 이끄는 당당한 선율은 곡의 흐름을 주도했고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는 해금·바이올린의 위상은 추후 유사한 방식의 작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했다.

마지막 곡은 토머스 오즈번의 국악 관현악 'Haru하루'이다. '해 뜨는 아침' '한낮의 폭풍우' '황혼' '보름달'의 4악장으로 구성된 곡이다. 토머스 오즈번은 미국 작곡가지만 한국 악기가 낼 수 있는 음향을 잘 이해해 매력적인 사운드를 창출해냈다. 1악장에서 사용한 정주와 찰현악기인 해금·아쟁이 곡의 중심을 잡았다. 2악장에서 소리북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탁월했다. 3악장에서 거문고 술대로 긁는 음향이라든지 금속 타악기를 금속의 채로 치도록 구사해 기본 음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신선했다. 4악장의 '보름달'은 기존의 곡보다 더욱 풍성한 음향으로 보충해 곡의 충실도를 높였다.

'국악 관현악 사운드'의 새로운 발견

'소리'라는 화두를 띄워두고 국악 관현악단의 음악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국악 관현악단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오랫동안 조율·음향·음량·악기개량의 문제, 그리고 전용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저마다 층위가 다른 여러 주장을 내왔다. 그러나 이번 공연을 보면서 국악 관현악단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이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롯데콘서트홀이라는 공간과 조우했고, 김성진이라는 지휘자와 조화를 이루었기에 갖게 된 생각이기도 하며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낸 소리로 확인한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995년에 창단됐고 창단 이후 24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며 그동안 연주자들의 기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그들만의' 빛깔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는 이들이 연주하는 새로운 곡에서 뿜어낼 소리가 어떤 음향으로 드러날지 궁금한 단계에 이르렀다.

한동안 국악 관현악단도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정제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국악 관현악단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출렁이는 에너지, 바로 그런 소리의 재발견이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 거문고의 둔탁한 소리, 대금과 피리가 내는 출렁이는 음정, 출렁이므로 낼 수 있는 역동적인 효과 등. 그것을 충실하게 드러내며 찾아가는 앙상블이 재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악기 간 음량의 조화와 어울림, 세밀한 악기의 표현과 앙상블을 찾아가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악 관현악이 반드시 서양 오케스트라를 이상적 전형으로 둘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제 국악 관현악은 '국악 관현악다운' 소리를 찾아가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음향 장치 활용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최적화된 공간에서 음향 장치에 의지하지 않고 악기의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악 관현악단의 사운드는 이제 '새로운 음향의 발견'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표준화된 서양 관현악단에 비할 때 국악 관현악단의 소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싫증나지 않는 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우리 악기의 역동성을 발견한 귀 좋은 이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발견일 것이다.

세계 3대 전기 작가 중 하나인 슈테판 츠바이크는 도스토옙스키 평전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전통은 현재를 위한 과거의 확고한 한계로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는 이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한 김성진호 국립국악관현악단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는 전통을 넘어서야 한다. 전통은 발목 잡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작동돼야 한다. 본성은 새로운 질서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자만을 사랑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로운 질서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고, 그것으로 까다로운 관객의 사랑을 획득하길 바란다. 선장 김성진이 그 역할을 섬세하게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글 **송지원** 음악학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음악인문연구소 소장으로 사람과 학문의 건강한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국악FM방송에서 '연구의 현장'을 진행하면서 음악의 인문학적 지평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조의 음악정책' 등을 저술했다.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27th

함께, Along with you 2019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2019. 7. 24.(수) ~ 8. 4.(일)

세종문화회관, 종로 아이들극장, JCC 아트센터 외 대학로 일대

이번 여름, 공연장에서 만나요!

7.24(수) ~25(목)	[스웨덴] 판토밈 씨어터 희망의 빛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스웨덴] 달리아 아산 마음의 정원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덴마크] 소피 크로그 씨어터 디바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스웨덴] 빠로 씨어터 애스톤의 친구 종로 아이들극장
7.27(토) ~28(일)	[스페인] 라룸베 무용단 3D 백조의 호수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한국]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이스라엘] 네페시 씨어터 이상한 이웃 종로 아이들극장	
7.30(화) ~31(수)	[한국] 극단 로.기.나래 안녕, 도깨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벨기에] 라이카 씨어터 길에서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7.30(화) ~8.4(일)	[네덜란드] 마스 씨어터 & 댄스 에그~션 히어로 JCC 아트센터 4전시장			
7.31(수) ~8.1(목)	[한국-스웨덴 합작] Tripod Race(가제) 종로 아이들극장			
8.3(토) ~4(일)	[영국 웨일즈] 아라드 고흐 씨어터 둘, 둘? 둘!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덴마크] 바티다 스파게티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리투아니아] 스탈로 씨어터 황새의 선물 종로 아이들극장	

The 27th ASSITEJ KOREA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주최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주관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사랑받는 명품도시 종로 종로문화재단 JEI 재능교육

문의 02-745-5862~3 홈페이지 www.assitejkorea.org

국립극장 7월 공연

해오름극장(리뉴얼 중)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 기타(외부공연장 기획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 이아람×조슬렝 미에니엘 'after Wood & Steel'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20:00 ■ 'Passion & Future'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20:00	11 ■ 이아람×조슬렝 미에니엘 'after Wood & Steel'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20:00	12 ■ '13인의 달아나 밴드'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20:00	13
14 ■ '열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16:00	15	16	17 제헌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 www.ntok.go.kr

※공연 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

율리아 피셔&드레스덴 필하모닉

지휘자 미하엘 잔덜링이 이끄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수석 지휘자 미하엘 잔덜링이 2015·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는다. 2011년부터 수석 지휘자로 활동한 미하엘이 드레스덴 필하모닉과의 마지막 시즌을 기념하는 투어 공연이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미하엘 잔덜링은 지휘자 쿠르트 잔덜링의 아들로 젊은 연주자들과 활발히 교류한다. 이번 공연에서도 독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협연자로 함께한다. 피셔는 힐러리 한·자닌 얀선과 함께 21세기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트로이카로 불리며 인지도를 높였다. 미하엘 잔덜링이 이끄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지난 2013년에 처음 내한한 바 있고, 2016년 리사이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팬을 만났다. 이번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교향곡 8번·베토벤 교향곡 5번·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등 독일 정통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날짜·장소 7월 6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빈체로 02-599-5743



클래식 음악

로베르트&요하네스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함과 동시에 슈만 상·모차르트 상·청중상까지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테크닉을 공부하고, 직접 스타인웨이 함부르크 본사에 찾아가 피아노 제작 과정을 배우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임용돼 교육자로 삶의 또 다른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2017년부터 '도이체 로만티크' 시리즈에서 독일 낭만 레퍼토리를 세 차례 선보인 바 있는 이진상은 이번 '로베르트&요하네스' 공연에서도 독일 낭만 시대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요하네스 브람스,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1부는 멘델스존의 '무언가'와 브람스의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을 연주하며, 2부는 슈만의 피아노를 위한 18개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을 연주한다.

날짜·장소 7월 11일 | 금호아트홀 연세
문의 금호아트홀 02-6303-1977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국립오페라단이 쿠르트 바일의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을 국내 초연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원래 소수의 성악가와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은 음악극으로 출발해 1930년 라이프치히에서 정식 오페라로 공연됐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 가상의 도시 마하고니가 번영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와 다채로운 음악이 더해져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음악극으로 손꼽힌다. '코시 판 투테'로 국립오페라단과 호흡을 맞췄던 다비드 레일랑이 지휘를 맡는다. 또한 라벨과 시벨리우스 등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안무해온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성수가 연출과 안무를 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무용수뿐만 아니라 성악가의 움직임도 부각해 오페라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무는 신선한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날짜·장소 7월 11~14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국립오페라단 1588-2514



번더플로어

1999년에 초연한 '번더플로어'는 '댄스 뮤지컬'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1997년 엘튼 존의 생일 파티에서 댄스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 파티에 참석했던 할리 메드캐프가 이에 영감을 받아 상업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구상해 선보인 것이 '번더플로어'의 시작이다. 초연 이후 미국·호주 등 50개 국가에서 공연했고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 첫 내한 공연 후 다섯 번째 방문이다. 이번 공연의 제작은 할리 메드캐프와 라틴 무용수 페타 로비가 맡는다. 올해 '번더플로어'는 다양한 음악을 접목해 한층 더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다. 특별한 스토리는 없지만 살사·탱고·자이브·왈츠 등 다양한 댄스 스포츠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 밖에도 바차타 장르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바차타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유래한 전통음악이자 커플 춤 종류의 하나다. 손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살사와는 달리 손과 몸을 이용해 추는 관능적인 춤사위가 특징이다.

날짜·장소 7월 2~14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시조가 국가 이념인 상상 속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 조선 사람들은 삶의 고단함을 시조 속에 담아 훌훌 털어버렸다. 그러던 중 역모 사건으로 시조 활동이 금지되면서 민중은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간다. 15년 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선 시조 대회가 열리고, 비밀시조단 골빈당은 이를 기회 삼아 조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주인공은 불평등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시어로 승화시키며 관객에게 희망을 전한다. 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2018 우수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선정작이다. 지난해 11월 이틀에 걸친 쇼케이스를 통해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천민이라 손가락질받지만 굴하지 않고 시조를 읊으며 사는 단 역에는 준과 양희준, 이휘종이 선다. 조선 제일의 시조꾼이지만 비밀을 감추고 골빈당에서 활동하는 진 역은 배우 김수하와 김수연이 맡는다.

날짜·장소 ~8월 2일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랑 1666-8662



엑스칼리버

뮤지컬 '엑스칼리버'는 2014년 스위스 세인트 갈렌 시어터에서 '아더-엑스칼리버'라는 제목으로 개발 중이던 작품이다. 이후 EMK뮤지컬컴퍼니에서 공연 판권을 확보해 작품명을 '엑스칼리버'로 변경하고 더욱 장대한 스토리와 뮤지컬 넘버를 추가했다. '엑스칼리버'는 아서왕과 엑스칼리버의 전설을 다룬 작품이다. 색슨족의 침략에 맞서 혼란스러운 고대 영국을 지켜낸 신화 속 영웅 아서왕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대본을 맡은 아이반 멘첼은 강력한 서사를 위해 캐릭터 간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구축했다. 특히 극의 클라이맥스를 더욱 비극적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11곡의 새로운 뮤지컬 넘버를 작곡했고, 연출가 스티븐 레인은 마법 같은 고대 영국을 환상적으로 시각화했다. 주인공 아더 역은 카이와 김준수, 도겸이 맡는다. 아더의 가장 가까운 친구 랜슬럿 역에는 엄기준과 이지훈, 박강현이 선다.

날짜·장소 ~8월 4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EMK뮤지컬컴퍼니 02-6391-6333

연극·무용



무용 **김주원의 탱고발레 '3 Minutes: Su tiempo 그녀의 시간'**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는 300석 규모의 가변형 극장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연출 의도에 따라 창의적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시리즈 프로그램 '컨템포러리 S'를 기획했으며 그 시작을 발레리나 김주원이 꾸민다. 이번 공연은 김주원이 2013년 발레 '마그리트와 아르망' 이후 다시 한번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주목된다. 작품은 밀롱가를 찾은 여자들의 사랑과 이별을 열정적인 탱고로 표현한다. '3 Minutes'는 두 남녀가 탱고를 추는 3분을 의미하며, 그 시간 안에 만남과 사랑, 이별의 서사를 담는다. 뮤지컬 '웃는남자' '마타하리' '팬텀' 등에서 김주원과 함께 협력 안무를 맡아온 홍세정이 연출로 참여하며, 직접 무대에 올라 활약할 예정이다. 전 국립발레단 무용수 강준하와 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이영철도 함께 무대에 선다.

날짜·장소 7월 11~14일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문의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무용 **국립현대무용단 쌍쌍**

국립현대무용단은 새로운 안무 방식을 탐색하고 이를 국내 무용계와 공유하고자 매년 해외 안무가를 초청해왔다. 올해는 스페인 무용단 라 베로날의 창립자이자 안무가인 마르코스 모라우가 조안무가 로레나 노갈, 마리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내한한다. 모라우는 파격적인 미장센으로 무용계에서 주목하는 안무가다. 현재 무용뿐 아니라 영화·문학·음악·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죽은 새들'로 내한해 국내 관객에게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 '쌍쌍'은 무한한 '쌍'들이 펼치는 아름다움, 그 속에 숨겨진 어두움을 포착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공개 오디션을 실시해 '쌍쌍'의 출연 무용수를 선발했다. 모라우의 안무 스타일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코바Kova' 또한 한 무대에서 공연된다. '코바'는 플라멩코와 현대무용의 에너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 충돌하는 두 장르의 상호 보완적인 만남을 즐길 수 있다.

날짜·장소 7월 19~21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국립현대무용단 02-3472-1420



연극 **2019 산울림 고전극장**

산울림 고전극장은 '소설, 연극으로 읽다'를 주제로 연극과 고전 문학의 만남을 꾀하며 2013년 첫 장을 열었다. 이후 매년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와 함께 작업하며 지금까지 총 28편의 문학 작품을 연극으로 재창작했다. 올해는 총 여섯 단체가 고전극장을 채운다. 지난 6월에는 푸시킨의 '스페이드의 여왕'(각색·연출 김정민),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에서'(각색·연출 김민경)를 선보였다. 7월은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재구성한 '외 갈매기'(각색·연출 박경식)와 니콜라이 고골의 '코' '광인 일기' '외투'를 원작으로 하는 '니콜라이 고골: 욕망의 메커니즘'(각색·연출 최호영)으로 무대를 채운다. 이 작품들은 고골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의 문학에 투영된 욕망의 다양한 면을 통해 현재를 바라본다. 8월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각색·작창 정지혜, 연출 이기쁨),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 '무무'(각색·연출 홍란주)가 관객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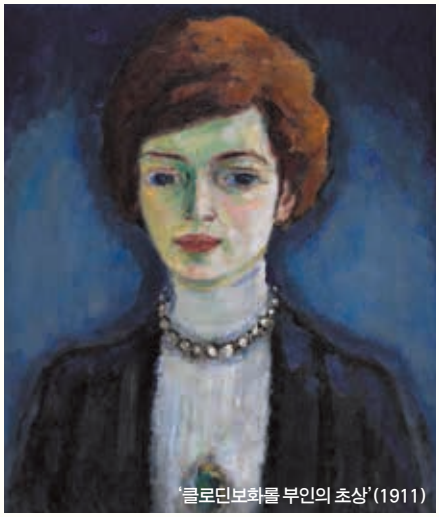
날짜·장소 ~9월 1일 | 소극장 산울림
문의 소극장 산울림 02-334-5915


'남성적 저항'(1953)

대안적 언어-아스거 욘,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

덴마크 출신의 아스거 욘은 사회 참여 예술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1940년대 결성된 코브라CoBrA 그룹의 창립 회원으로 활약했는데 코브라는 20세기 중반 다수의 추상 화가를 배출한 도시 코펜하겐·브뤼셀·암스테르담의 첫 글자를 따 명명된 미술 그룹이다. 이번 전시는 아스거 욘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으로 회화·조각·사진·출판물 등 작품 9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명 '대안적 언어'는 서유럽 중심 미술사에서 벗어난 대안적 미술사 쓰기를 제안한다는 의미다. 전시는 '실험정신, 새로운 물질과 형태' '정치적 헌신, 구조에 대한 도전' '대안적 세계관, 북유럽 전통'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관객 참여형 작품 '삼면축구'는 아스거 욘이 고안한 경기 방식으로, 세 팀이 동시에 경기를 진행해 실점을 가장 적게 낸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의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예술을 통해 대안을 찾으려 한 아스거 욘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날짜·장소 ~9월 8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02-3701-9500


'클로딘보화를 부인의 초상'(1911)

혁명, 그 위대한 고통-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라코스테 그룹의 소유주인 피에르 레비와 데니스 레비 부부는 40여 년간 작품을 수집했다. 부부는 1976년 수집품 약 2,000점을 국가에 기증했고, 기증품을 중심으로 프랑스 트루아 현대미술관이 세워졌다. 이곳은 프랑스의 중요 보물 컬렉션으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약 2년간의 미술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국과 독일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됐고,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현대미술과 추상미술의 분수령이 된 20세기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20세기 초반 예술가들이 처한 시대 상황과 동료 예술가들의 미묘한 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전개된다. 또한 앙드레 드랭이 그린 야수파 걸작 '빅 벤'이 공개된다. 거기다 '빅 벤' 단독 특별관이 마련돼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세기의 라이벌이던 야수파 창시자 마티스와 입체파 창시자 피카소의 특별관도 마련돼 있다.

날짜·장소 ~9월 15일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문의 코바나컨텐츠 02-532-4407


'Pink'

Peter Pabst: White Red Pink Green-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

안무가 피나 바우슈의 오랜 예술적 동료인 무대미술가 페테르 팝스트의 전시가 열린다. 페테르 팝스트는 약 30년간 부퍼탈 댄스 시어터의 무대를 책임져왔다. 피나 바우슈는 '탄츠테아터'라는 새로운 공연 장르를 확립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그녀의 예술적 성공에는 페테르 팝스트의 파격적인 무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무대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살아 있는 동물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세트는 무용수에게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전시 공간은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는다. 전시의 주요 작품인 'Pink'는 피나 바우슈와 페테르 팝스트의 대표적인 협업작 '카네이션'의 무대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1980'을 재구성한 'Green' 등 강렬한 색채의 설치 작품이 감각을 확장케 한다.

날짜·장소 ~10월 27일 | 피크닉
문의 피크닉 02-6245-6371

국립극장 이용 안내

티켓 예매 및 회원가입 안내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예매 수수료 없음, 엔톡NTOK 회원 가입 시 최고 20% 할인율 제공

전화 및 현장 예매

콜센터 02-2280-4114(오전 9~12시, 오후 1~6시 / 연중무휴)

예매처 하늘극장 옆 고객지원센터 방문

할인 안내

종류	할인율		비고
엔톡NTOK 회원	최고 20%	1인 4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문화융성카드		제한 없음	문화융성카드 결제 시
임산부	20%	본인	산모수첩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문화패스(청소년 등)	30%	본인	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소지자
경로	50%	본인	65세 이상
문화누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유공자		1인 2매	복지카드 소지자

*공연별 할인율은 주최 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TICKET RESERVATION AND JOIN

INTERNET / MOBILE RESERV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website ntok.go.kr

No reservation fee, Maximum 20% discount for NTOK members

MOBILE / COUNTER RESERVATION

Service Center 02-2280-4114 (9:00–12:00 a.m., 1:00–6:00 p.m. every day)

Booking Office Visit to the Customer Service Center next to Haneul Theater.

DISCOUNT

Category	Discount Rate		Remarks
NTOK member	Max 20%	4 per person	NTOK website members
Cultural prosperity card		No limit	Purchase with cultural prosperity card
Pregnant woman	20%	Oneself	Who has pregnancy diary
Dadung-i happy card			Who has a Dadung-i happy card
Culture pass (teenager, etc.)	30%	Oneself	8–24 years old, Uni. Student
Art pass			Who has an art pass
Elder	50%	Oneself	65 years old or older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Near poverty			Near poverty
Handicapped veteran		2 per person	Who has a welfare card

*Refer to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ebsite for the detailed discount information of each program.
*Take the certificate to receive the ticket.

NATIONAL THEATER OF KOREA INFORMATION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주차 안내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로 국립극장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국립극장 맞은편 한국자유총연맹(J-그랜하우스웨딩홀)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공연 당일 국립극장 내 사전 정산 시 5천 원(공연 시작 전 30분~종료 후 30분)

미정산 시 최초 30분 2천 원 이후 10분당 1천 원(일일 최대 2만 5천 원)

*주차 할인권은 매표소에 당일 공연 티켓을 제시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자유총연맹(J-그랜하우스웨딩홀)이 혼잡해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 국립극장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국립극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동반 차량 및 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주차는 국립극장 고객지원센터(02-2280-4114)로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후 도보·버스 이용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후 버스 이용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하차 후 버스 이용

간선버스 420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남산순환버스 02·03·05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무료 셔틀버스

공연 전

타는 곳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운행구간 3호선 동대입구역→국립극장

운행시간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

공연 후

타는 곳 하늘극장 앞

운행구간 국립극장→3호선 동대입구역→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운행시간 공연 종료 직후

DIRECTION

ADDRESS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PARKING

As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s under construction the parking lot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not available. Go to the parking lot of Korea Freedom Federation (J-Gran House Wedding Hall) across the Theater.

PARKING FEE

Pre-purchase of parking discount ticket on the day of performance

5,000 KRW (30 minutes before/after the performance)

Without parking discount ticket 2,000 KRW for less than 30 min.,

1,000 KRW/10 min. after first 30 min. (Max 25,000 KRW a day)

*Present the ticket of the day at the ticket office to purchase the parking discount ticket.

*The parking lot of Korea Freedom Federation (J-Gran House Wedding Hall) will be crowded on the weekend. Public transportation and free shuttle bus could be the easier way to visi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Make an advance inquiry to the Management Facilities Team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regarding the parking of bus, large vehicle, and handicap accessible vehicle. (02-2280-4114)

SUBWAY / BUS

Dongguk Univ. Station (Line. 3) Transfer to the bus or on foot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2/4/5) Transfer to the bus

Hangangjin Station (Line. 6) Transfer to the bus

Bus 420 'National Theater of Korea' stop

Namsan Circulation Bus 02/03/05 'National Theater of Korea' stop

SHUTTLE BUS (FREE)

BEFORE PERFORMANCE

Boarding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at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 (Line. 3)

Route Dongguk Univ. Station (Line. 3) ⟶ National Theater of Korea

Operating Time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to 20 minutes before performance

AFTER PERFORMANCE

Boarding In front of Haneul Theater

Route National Theater of Korea ⟶ Dongguk Univ. Station (Line. 3) ⟶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2/4/5)

Operating Time After the performance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MUSEUM OF PERFORMING ARTS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관해 약 22만 점의 귀중한 공연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설립된 195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극·무용·창극·음악·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공연예술자료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자료실

자료실 I	공연 영상·음향·사진·대본·프로그램 등
자료실 II	연극·창극·무용·음악 등 도서자료
운영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12~1시 휴실)
위치	공연예술박물관 1층(자료실 I), 지하1층(자료실 II)
휴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문의	02-2280-5834, 4025~6

상설전시실

관람 안내

관람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문의	02-2280-5804, 5806

*박물관 내부 프로그램 진행 시 사전 예약하지 않은 단체(5인 이상)는 전시실 관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관람 안내

관람 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단체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학교 및 기관 관람 인원이 10인 이상~30인 미만일 경우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단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해설 안내

전문 전시해설사가 상설전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 1인 이상~30인 이하(초등 고학년 이상)

*전시해설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시해설 예약은 단체관람 예약과 별도입니다.

*기획전시실은 공사로 인해 2019년 10월까지 휴실합니다.

Opened on December 23, 2009,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has the most precious materials amount to about 220,000. Since its foundation in the 1950s until now, it has collected and stored materials in performing arts of various genres such as play, dance, changgeuk, opera, and pansori in which the materials are being served to the public through its exhibition rooms and Performing Arts Archives.

PERFORMING ARTS ARCHIVES

Archive I	Performance video, sound, picture, script, program, etc.
Archive II	Play, changgeuk, dance, music (library)
Opening Hour	9:00 a.m.–6:00 p.m. (Closed between 12:00 p.m.–1:00 p.m.)
Location	1st floor of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Archive I), B1 (Archive II)
Close	Saturday, Sunday, public holiday
Info	02-2280-5834, 4025–6

PERMANENT EXHIBITION

EXHIBITION INFO

Opening Hour	10:00 a.m.– 6:00 p.m. Tuesday to Sunday (Last enter 5:30 p.m.)
Close	Monday, 1st of January
Admission	Free
Info	02-2280-5804, 5806

*Some of Permanent Exhibition could be limited to the groups over 5 without reservation while the internal program is in progress.

GROUP VISIT

Advance reservation for groups to prevent any disorder and accident of the exhibition.

*Reservation is required for all the kindergarten, school, and institution groups of 10 to 30 before a week ago. Contact to the office for the groups over 30.

EXHIBITION COMMENTARY

Professional exhibition commentators conduct the exhibition commentary.

Group Group of 30 or less (from 4th grade of elementary)

*Commentary could be ended by the order of arrival.

*Reservation of the commentary is different from the group tour reservation.

*Special exhibition room has been closed due to the operation until October, 2019.

※국립극장 지하 주차장 건립 공사로 인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실이 임시 휴실합니다. 공연예술자료실은 정상 운영합니다.

Permanent Exhibition is not available from April to August due to construction of underground parking lot. Performing Arts Archives are available.

MIX

46
세계무대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

50
전통 예술 기행
인도의 전통 무용 '카타칼리'

54
삶과 노래 사이
변학도를 통해 다시 읽는 '춘향전'

58
예술서적
피오나 스태퍼드
'길고 긴 나무의 삶'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다

세계 10대 축제로 손꼽히는
몽골의 전통 축제가 있다.
드넓은 초원에서 펼쳐지는 몽골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궁금하다면
'나담'을 주목해보자.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은 몽골어로 놀이 또는 경기를 뜻한다. 말 그대로 나담에서는 호로당 모리Hurdan Mori(말 경주)·소르 하르바Sur Harvaa(활쏘기)·부흐Böh(씨름)와 같은 놀이이자 경기가 벌어진다. 이를 '에링 고르왕 나담Eriin Gurvan Nadam'(남자의 3종 경기)이라 한다. 현재는 씨름을 제외한 두 종목에 여자도 참가하므로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본래 남자들이 힘과 기예를 겨루는 놀이에서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지금도 나담을 에링 고르왕 나담이라 한다.

몽골인의 삶과 문화를 담은 축제

나담은 몽골인의 삶과 생업 및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말은 몽골인의 삶에 가장 밀착해 있는 가축이다. 몽골인에게 말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 또한 말이 없이는 너른 초원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유목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이 점은 천 년 전이나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했으면 '말이 없는 몽골인은 날개 없는 독수리'라는 속담이 생겨났겠는가? 당연히 몽골인은 좋은 말에 대한 욕망도 남달랐고 자기 말에 대한 자랑도 대단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서로 자기 말이 잘 달린다고 우겨대는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말 경주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여부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서 속에서 말 경주가 하나의 경기로 정착된 것만은 사실일지 모른다.

활 역시 전통시대 몽골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다. 즉 활은 보조 생업인 사냥 도구이자 외적을 막고 대외 원정을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무기다. 흔히 "몽골인은 기마騎馬와 궁시弓矢로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한다. 말 그리고 활과 화살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뜻이다. 과장이지만 활과 화살이 몽골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증언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몽골 구전 설화에는 활을 잘 쏘는 명사수 이야기가 많다. 그중 돋보이는 것이 '에르히 메



르겐' 이야기다. 에르히 메르겐은 '엄지손가락에 힘이 있는 명사수'라는 뜻이다. 그는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맞히는 천하제일의 명사수였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해까지 맞혀 떨어뜨린 신궁이다. 명사수 이야기는 몽골족의 설화에도 등장한다. 몽골 역사서 '몽골비사Mongγol-un niʹuča tobčaʹan' 첫 부분에는 칭기즈칸 조상의 계보가 나온다. 그 설화에 따르면 최초의 몽골인은 하늘이 점지한 푸른 이리와 암사슴 사이에서 태어난 '바타치칸'이라는 사람이다. '코리차르 메르겐' '보르지기다이 메르겐' '도본 메르겐' 등 그의 후손들 이름엔 줄줄이 '명사수'란 뜻의 '메르겐Mergen'이 붙는다. 이는 몽골인의 삶 속에서 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몽골 그림 속의 전사들은 언제나 말을 타고 활과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있다. 사냥 갈 때도, 싸우러 갈 때도 그 모양새다. 그중 출중한 사람은 메르겐으로 불렸고, 그

는 선善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활쏘기 대회는 메르겐이 되기 위한 다툼이다. 이것이 오늘날 나담의 한 종목으로 정착됐다.

씨름은 전통적으로 에링 고르왕 나담의 정수이자 남자의 힘과 능력, 위세를 만인에게 과시하는 경기로 여겨졌다. 말 경주와 활쏘기는 거를 수 있어도 어느 나담에서든 씨름만은 반드시 열린다. 축제에서 씨름 경기가 맨 먼저 열리는 것도 씨름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몽골의 거친 대지와 혹독한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커다란 시련이다. 강인한 정신력과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한 사냥과 전쟁에서도 무엇보다도 강한 체력이 요구됐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씨름 경기를 벌여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고 시합했다. 몽골 서사시에는 "수낙타 가죽으로 만든 조닥(씨름복 상의), 수소 가죽으로 만든 쇼닥(씨름복 하의)"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는 수낙타와 수소의 힘이 자신에게 전이되기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씨름 역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놀이 문화로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나담은 몽골인들의 삶의 과정이 여과 없이 반영된 놀이 문화다. 그런 이유로 나담에서 벌어지는 경기와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 속에는 몽골인의 민속과 신앙 의식이 응축돼 있다. 옛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싸움도 마지막에는 이 3종 경기 또는 그중 어느 하나를 통해 해결한다. 예컨대 몽골 옛이야기에서는 하늘로 올라가 북두칠성이 된 착한 형제들이 샤즈가이 칸(까치대왕)이라는 사악한 왕의 부하들과 대결할 때도 활쏘기와 씨름으로 승부를 내고, 또 다른 북두칠성 이야기에 나오는 알하이 메르겐과 고낭 사르 형제가 망가스 대왕이라는 악마와 싸울 때도 3종 경기가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나담은 몽골 유목민들이 이룩한 물질·정신문화의 종합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지금까지 몽골인의 가장 큰 축제로 계승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족의 뿌리를 잇는 축제

몽골인은 어디에 있든 나담을 기억하고 여름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즐긴다. 몽골(속칭 외몽골)은 물론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속칭 내몽골)와 바이칼호 동남쪽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부랴트 등 몽골족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나담이 열린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나담을 지내기 위



01
활쏘기에 참여한
몽골 명사수의 후예들



02

해 귀국하고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축제 시기에 맞추어 고향을 찾는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축제를 즐긴다. 한국에서 머무는 몽골족(2018년 말 기준, 약 4만 6천 명)도 해마다 나담을 즐기고, 베이징에 거주하는 몽골족 역시 2년에 한 번씩 나담을 개최한다. 이들은 축제를 통해 보고픈 고향 산천을 생각하고, 현대 문명의 그림자에 억눌려 사라져가는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나담은 여름철에 열린다. 몽골국의 경우 7월 11~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물론 같은 몽골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시기에 열리는 경우도 있다. 이 축제는 명절보다 더 북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차강 사르(우리의 '설'과 같은 몽골 명절)가 비교적 정적이라면 나담은 동적이다. 무엇보다 기후가 좋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겨울이 길고 추운 몽골에서 6~8월은 그야말로 황금 계절이다. 햇볕은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금방 서늘해진다. 또한 여름은 대자연의 선물인 유제품이 풍부한 계절이다. 그래서 유목민은 유목민대로 행복하고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행복한 시기가 바로 이때다. 겨우내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유목민 게르에 낯선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도 여름이다. 이래저래 행복한 시기인 7월 중순에 나담이 열린다.

나담은 오랜 역사 과정에서 변화 발전해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3종 경기가 벌어지는 에링 고르왕 나담은 물론이고 여자까지 참여하는 현재의 나담도 역사의 산물이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몽골에 최초로 국가를 세운 흉노에 관한 기록이 많다. 그중에는 흉노의 제천 행사에 관한 것도 있다. 그중 "가을이 되어 말이 살찌면 나무를 돌며 제사를 지내고 사람과 가축을 헤아렸으며, 정월·5월·9월 무일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국사를 논의한 후 말 경주와 낙타 경주를 즐겼다"라는 기록이 있다. 후자의 말 경주는 오늘날 나담 종목의 하나다. 몽골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나담의 기원을 흉노의 제천 행사 후 거행된 제전에서 찾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흉노 이후 거의 모든 유목민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흉노에 이어 몽골 초원을 지배한 선비를 비롯해 돌궐이나 거란도 제사나 황자 출생·황후 책봉·황제의 생일 등 경축일에 활쏘기나 말달리기 또는 씨름을 즐겼다. 이러한 전통은 1206년 몽골 초원을 통합하고 몽골 제국을 창건한 몽골족까지 이어진다.

이른바 '칭기즈칸 비석'이라는 석각 비문이 이를 말해준다. 현재 가장 오래된 몽골 자료로 알려진 이 비석에는 "칭기즈칸이 사르타굴 백성을 항복시키고 부카-소치가이에 모든 몽골 왕공王公들이 모였을 때 에숭게가 335알다(약 536미터)를 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르타굴은 중앙아시아의 호레즘으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부근이다. 따라서 비문은 칭기즈칸이 호레즘 원정(1219~1225년)을 끝내고 열린 활쏘기 대회에서 에숭게가 약 536미터를 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몽골 연구자들은 이를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대규모 나담으로 보고 있다. 전쟁을 끝내고 이를 기념해 나담이 열렸는데, 활쏘기 대회에서 에숭게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서 이때 다른 경기가 열렸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나담은 기본적으로 흉노에서 몽골제국에 이르는 이러한 놀이 문화 전통을 계승한 축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나담 축제가 7월로 고정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21년 혁명 이후다. 특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뀐 1990년대 이후, 혁명적 색채를 벗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몽골인을 하나로 묶고 전통을 확인하는 순수 국민 축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진이 군사 퍼레이드를 대신하고 칭기즈칸의 '톡 술데'(군기)가 세워진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몽골의 나담은 전 세계 몽골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적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02
씨름 경기에 참여한 몽골 장사들

글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몽골사 연구자로 몽골의 신화와 종교 등 몽골의 정신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케랄라의 카타칼리 공연



인도의 전통 무용 '카타칼리'

대사가 담긴 표정, 역사가 깃든 몸짓

지상에 남아 있는 낙원이라 불리는
인도의 케랄라주.
이곳에는 긴 서사시를 언어보다
몸동작에 집중해 전달하는
전통 무용이 있다.

India

내게 인도 여행은 사소한 긴장과 신경전의 연속이다.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오토릭샤를 타는 순간도 그렇다. 대부분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말하면 다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막상 출발해보면 반절가량의 기사는 길을 모른 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반절의 영악한 기사는 일부러 돌아간다. 후자라고 파악되면 화를 내야겠지만 전자인 경우는 난감하다. 지도를 보여주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도, 아무렴 내가 기사인데 외국인인 당신보다 모르지 않다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택시를 탔다고 뒷자리에 편히 앉아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감상할 여유보다는 이 사람이 옳게 가는지 감시하며 도끼눈을 떠야 하는 시간이 더 길다. 결국 나는 택시의 승객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사를 도와 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 인도에 있다 보면 종종 택시의 승객이 아닌 기사의 조수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꽤 난도 높은 주소지에 힘을 합쳐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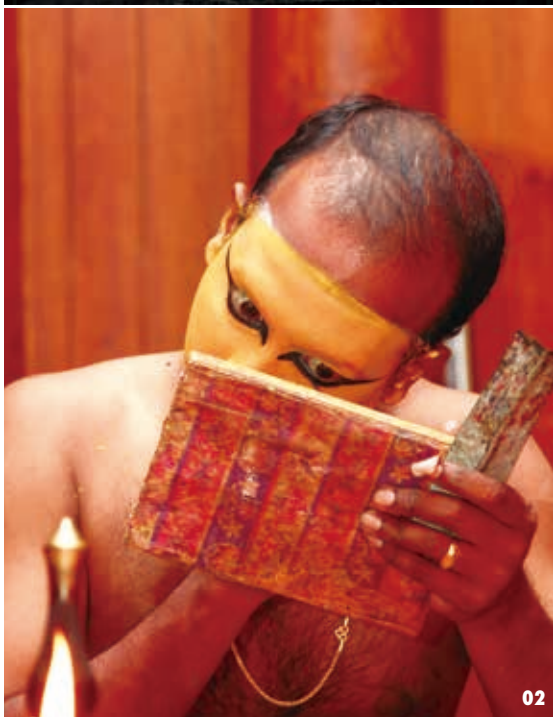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상황이 즐거운 건 여행 초기뿐이다. 여행이 중반에 접어들면 점차 체력이 바닥나고, 웃어넘길 일에도 짜증이 밀려온다. 남에게 짜증 내려고 길 떠나온 건 아니니, 서둘러 긴장의 끈을 놓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야 한다. 인도 남서부 해안의 케랄라는 바로 그렇게 지친 날 찾기 좋은 곳이다. 1999년, 세기말을 앞두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케랄라주를 지상에 남아 있는 10곳의 낙원 중 한 곳으로 소개했다. 아라비아해의 멋진 풍경과 널기리 구릉의 광활한 차밭의 아름다움도 한몫했지만, 잘 보존된 고유의 문화유산과 좋은 복지 정책도 선정 이유였다. 연방제 국가인 인도는 주마다 각각의 나라라 불러도 될 정도로 지역의 특색이 뚜렷한데, 그중에서도 으뜸은 케랄라다. 케랄라는 문화적으로 세 가지 고유한 유산을 인도에 남겼다. 바로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 전통 무술 칼라리 파야트, 그리고 인도 4대 무용 중 하나로 각광받는 카타칼리다.

대서사시를 이끄는 힘 있는 이야기극

케랄라의 카타칼리는 우리에게 마임과 흡사해 보인다. 산스크리트어로 카타는 이야기, 칼리는 행위란 뜻이다. 풀어서 해석하면 이야기극이다. 남성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이 무용은 마치 일본의 가부키나 중국의 경극을 연상케 하는 과장된 얼굴 분장이 특징이다. 여기에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무거운 의상을 입어야 한다. 이야기는 배우의 표정·몸짓·손짓을 통해 전해지며 가수의 노래와 연주자의 반주가 가미된다. 내레이터 역할을 겸한 가수가 케랄라의 현지 언어인 말라얄람어로 된 노래를 통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배우가 하이라이트 장면을 마임으로 표현한다. 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언어가 배제된다는 점이



01


02

꽤 흥미롭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이야기꾼이 될 소질이 다분한 인도인은 그들이 만든 모든 무용을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인도 4대 무용인 카타칼리뿐 아니라 북인도의 전통 무용 카탁도 힌두교 신 크리슈나의 사랑 이야기를 연기와 몸짓으로 표현한 춤이고, 바라트나트얌은 신에게 드리는 찬송을 몸짓으로 재현한 춤이다. 특정한 이야기를 언어로 풀어내지 않고 몸동작으로 전하는 예술이 인도의 무용인 셈이다.

카타칼리의 뿌리는 불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형태는 17세기경에 완성됐다고 하지만, 카타칼리와 유사한 이야기극은 문헌상 2세기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왕과 귀족을 위한 문화였지만, 이내 민간에 퍼졌다. 인도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이나 특이하게도 역사를 기술하지 않은 나라다. 종교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도인이 보기에 신의 1년은 인간의 360년에 해당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 바닷가 모래알의 수를 헤아리는 것처럼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인간의 역사 대신 신의 역사, 혹은 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들이 상상한 신의 이야기, 신의 역사를 우리는 대서사시라고 한다.

인도의 2대 영웅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카타칼리의 끊이지 않는 소재의 원천이다. 언젠가 '심청가' 완창을 모두 들은 게 일생의 자랑인, 문화 애호가를 자처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10시간 분량의 카타칼리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 공연이 끝난 후, 뿌듯한 표정을 한 그에게 이 내용이 고작 마하바라타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대목이라고 말하자 그는 아연실색했다. 실제로 마하바라타는 그리스 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모두 합친 분량의 열 배쯤 된다. 그러니 전통 카타칼리 공연은 황혼에 시작해 일출 직전에 끝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도인들도 3~5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이면 클래식 카타칼리라고 부르곤 한다.

노력으로 지켜낸 전통의 미래

여행자들이 관람할 수 있는 카타칼리는 대략 한 시간 분량의 아주 축약된 버전이다. 모든 전통극이나 무용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기반으로 하며 그 지역의 언어로 공연된다. 따라서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온 외국인 여행자에겐 대부분의 전통극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카타칼리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여행자에게도 큰 재미를 주는데, 공연 전 미리 공개되는 분장 시간 때문일지도 모른다. 카타칼리는 가부키나 경극보다 더 화려한 얼굴 분장이 특징이다. 배우들은 공연 한 시간 전쯤 무대에 앉아 분장을 시작한다. 모든 재료는 케랄라에서 나오는 천연 성분의 염료다. 녹색은 주인공의 색으로 비슈누 신을 상징하는데, 님Neem이라는 인도 전통 의학에 쓰이는 잎을 가루내 쌀가루와 코코넛 오일에 섞어 염료를 만들고, 노란색은 우리가 모두 아는 강황, 흰색은 석회와 쌀가루를 섞어서 만든다. 일단 색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캐릭터에 따라 배정된 기초화장을 한 후, 가느다란 브러시로 눈썹·아이라인·입술·수염 등을 그린다. 카타칼리에 여성 출연자는 없지만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 배우가 있는데, 손거울을 들고 여성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리는 배우의 모습이 꽤 묘하면서도 매력적이다.

분장이 끝나면 무대가 닫히고 의상을 입는 시간이 이어지

01
카타칼리 공연 광고판

02, 03
공연 전 무대에서
분장하는 배우



03

는데, 이는 관객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요즘은 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연 시작 전 배우 한 명이 나와 카타칼리에서 통용되는 손동작과 얼굴 표정이 무얼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사실 관객의 호응은 이 대목에서 가장 좋다. 카타칼리의 절기인 얼굴의 반은 웃고, 반은 우는 장면을 연출하면 객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온다.

공연이란 관객이 있어야 존재하고,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꽤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였다. 이 시기 대다수의 배우가 각자 살길을 찾아 무대를 떠났다. 문화예술에서 20~30년의 단절은 한 세대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사재를 털어, 자신의 집에 공연장을 만든 데반 박사는 두세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노력을 시작으로 요즘은 꽤 많은 카타칼리 전문 공연장이 생겨나고 있다. 케랄라주의 주도 트리반드룸에서 만난 카타칼리 전승자 우다얀Udayan 씨의 말에 따르면, 카타칼리는 이야기가 깃든 문학, 강렬한 메이크업과 화려한 복장에서 비롯되는 회화, 음악과 연기 그리고 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 언젠가 '햄릿'을 카타칼리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는 카타칼리야말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유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케랄라를 찾았을 땐 카타칼리 햄릿 공연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글·사진 **전명윤** '환타'라고도 불린다. 24세 때 발을 헛디뎌 인도에 떨어진 후 지금까지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다. 일곱 권의 여행안내서와 두 권의 에세이를 냈으며 현재 '시사인'에서 '소소한 아시아'를 격주로 연재하고 있다.

변학도를 통해 다시 읽는 '춘향전'

민중의 열망으로 새로운 세상을 쓰다

억울하게도 변학도가 미움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춘향의 행복을 바라는
민중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던 억울함

한 남자가 있다. 부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산다.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저런 노력 끝에 지방이긴 해도 명성 있는 조그만 고을에 부임한다. 관료 생활을 하면서 배운 대로, 또 매뉴얼대로, 떠나는 사또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대로 관청 장부와 대조해가며 고을의 국가 재산과 살림을 빠짐없이 철저히 점검한다. 그런데 그 착실함이 독이 됐다. 처음엔 어딜 가든 있는 이유 없는 모함과 질시라고만 생각했다. 탐욕스러운 지방관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늘 있고, 또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니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느닷없이 나타난 감찰관리가 그를 탐관오리貪官汚吏라며 봉고파직封庫罷職 시켜버리지 않는가. 그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감찰관과 고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위의 동료 관리들까지 모두 똘똘 뭉쳐 그를 추잡하고 파렴치한 족속으로 몰아붙였다. 그렇게 악명을 얻었다. 지워지지 않는 불우한 낙인이 찍혔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변학도다. 맞다, '춘향전'의 남원부사 변학도 말이다.

사실 '춘향전' 이야기만 보면 변학도의 잘못은 없다. 조선





시대 현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물론 변학도가 탐학무도貪虐無道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징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면 그가 매도당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춘향을 탐했기 때문이다.

"뭔 소리여! 지방관이란 작자가 남원에 내려오자마자 한 짓이 기생점고妓生點考 같은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된 거여?"

이런 날 선 비난은 우리 정서에 맞기는 하지만,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조선 시대에 기생점고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누구든 신임으로 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지방관의 업무'였다. 인수인계한 신임 관리는 지역 현안, 추진 사업, 민심 동향 등은 물론이고, 병장기를 비롯한 각종 기물, 소속 인력, 관청 살림살이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 당연한 확인 절차에 관기官妓들도 포함된다. 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의 점검은 필수다.

"그렇다 해도 춘향이는 관기가 아니잖아? 오라 가라 하는 게 옳단 말이야?"

물론 춘향은 관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방관이 부르면 냉큼 달려가야만 한다. 신분제 사회였던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춘향은 천민賤民이었다. 아버지의 신분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종모법從母法이 시행되는 조선 시대이니, 기생 모친의 신분을 따라 천민이 된다. 계급사회의 정점에 선 양반이, 그것도 한 마을의 관장인 사또가 부르면 누구든 가야 한다. 양반도 그러한데, 하물며 평민도 아닌 천민은 말할 것도 없다. 계급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괴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춘향을 데려오라는 변학도의 명령은 이상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거였다.

결국 불려나온 춘향이는 변학도와 실랑이를 벌인다. 정확하게는 억지를 부리는 춘향과 기가 막혀 하는 변학도 사이의 악다구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춘향은 "소녀가 비록 천한 몸이오나, 어려서부터 예법은 알아…"라고 말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연신 늘어놓고 지방관인 사또의 수청守廳을 거절한다. "지아비가 있으니 수청을 못하겠다"라는 춘향의 말은 변학도에겐 망발의 정점이다. 변학도 입장에선 속에서 천불이 날 소리다. 예법은 양반 부녀자의 것이지 기생 딸의 것은 아니다. 또한 아무리 예법을 안다 한들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전임 사또의 자제와 혼인한 관계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혼인한 적도 없고 첩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없다. 단지 춘향이 혼자 지아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설령 춘향이 이몽룡의 첩이었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다. 조선 시대 양반들이 이곳저곳 다니며 한두 번 함께 지낸 첩은 한둘이 아니었고, 하룻밤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첩으로 받아들인다는 약조를 골백번 해도 마찬가지다.

간혹 춘향이처럼 양반의 수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양반들이 순순히 물러났을까. 저항하는 즉시 불호령이 떨어지는 냉정한 계급사회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 기생의 딸이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건 무척 놀라운 일이다. 변학도 입장에선 춘향의 항거를 지방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다. 따라서 춘향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그에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내가 아니어도, 너라도 제발!"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춘향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암행어사가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왕명을 받아 민정을 시찰하는 암행어사를 생판 초짜 관리에게 시키지 않는다. 4~5년 정도 훈련된 관리에게나 어사를 제수하는데, 그걸 이몽룡은 곧장 받는다. 게다가 자신의 연고지를 피해야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있어 남원 지방 암행어사가 절대 될 수 없음에도 이몽룡은 어사가 돼 남원으로 내려온다. 그러고는 춘향을 콕 찍어 구해낸다. 관료로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정인情人만을 구출해낸다. 나아가 임금은 춘향을 크게 표창해서 첩이 아닌 처妻가 되게 하고 심지어 정렬부인貞烈夫人 직첩까지 내린다.

바로 이런 현실성 없는 설정의 연속에 '춘향전'의 혁명성이 담겨 있다. '춘향전'이 고전 중에 고전인 이유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 누구도 묻지 않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데 있다. 그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춘향전'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한다.

변학도에게 저항하며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의 모습이 다소 황당한 설정임을 당시 사람들은 모르지 않았다. 더불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도, 남원에 내려와 춘향을 구출해내는 것도, 그리고 정렬부인으로 삼는 것도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 전개란 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판타지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비록 자신은 질곡에 묶여 있지만, 부디 춘향만은 벗어나 훨훨 날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춘향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도련님이 떠난 후 그녀에게 연일 시련이 닥쳤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변학도의 수청을 승낙할 수도 있지만, 변학도가 간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러한 상황을 끝없이 이어갈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어떻게 될까. 그녀다움은 어디로 가버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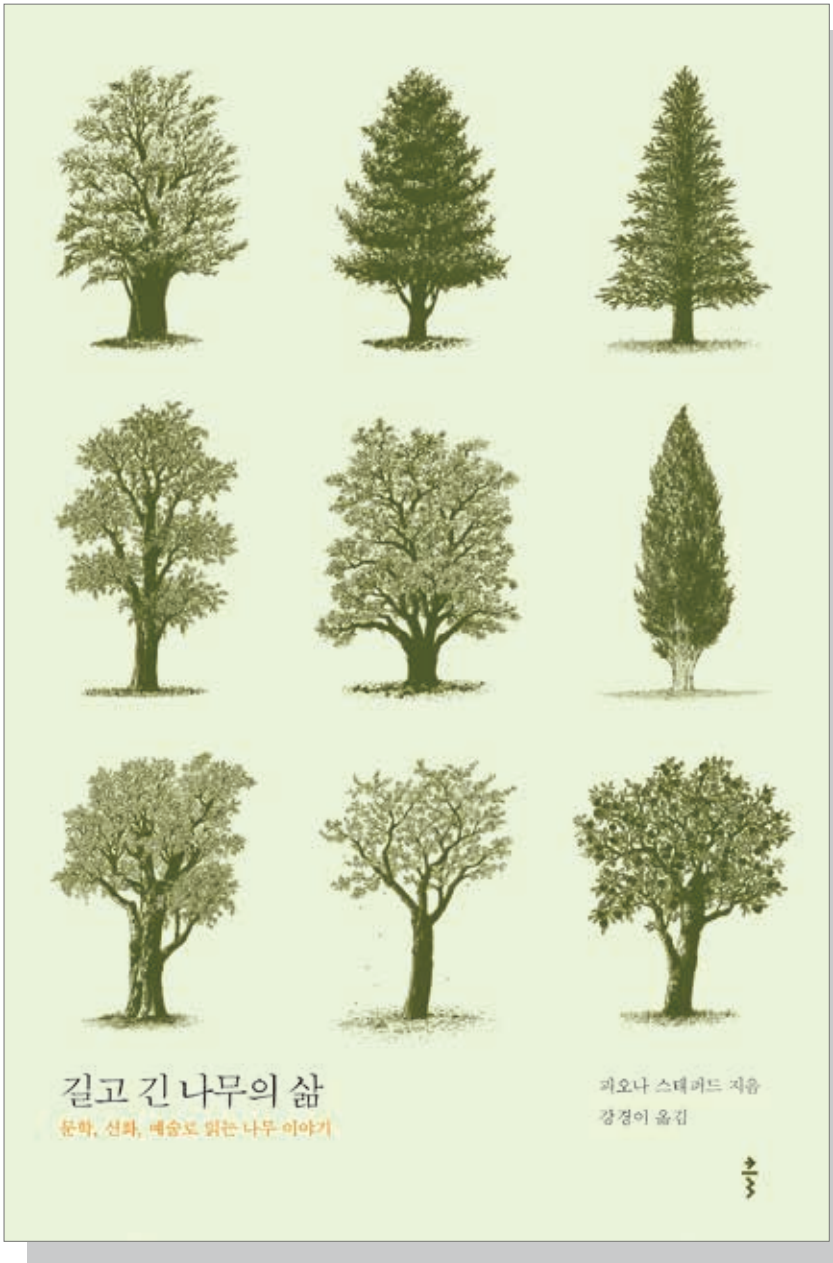
그랬다. 춘향은 이 황망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 저항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며 바락바락 대들어야만 겨우 제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랬다. 춘향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알았다. 그렇게 버티는 안쓰러움을 눈물 어린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춘향전'이라는 판타지를 만들어냈다. 고귀한 양반 도령께서 암행어사가 돼 춘향을 구출하러 내려올 리도 없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춘향은 절대 정렬부인이 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남원 사람들 모두 춘향이 감옥에서 고생할 때 같이 애달파했고 슬퍼했고 통곡했다. 춘향이 한양으로 올라가자 자기 일인 것처럼 신이 나서 기뻐했다. 춘향이처럼 자신도 잘될 거라는 희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한마음이었다. 그녀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비록 나는 아니어도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라'는 열망, 그것이 '춘향전'이다. 그리고 '춘향전'을 읽고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춘향전'에 담긴 혁명성의 본질이다.

글 **유광수** 연세대학교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한 후, 우리 고전의 현재적 적용과 계승을 위해 교육·방송·출판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림 **미르** 일러스트레이터

피오나 스태퍼드 '길고 긴 나무의 삶'

나무에 귀 기울이는 위안

우리는 긴 세월 인류와 함께해온
나무에 마음을 기댄다.
일상 곳곳에서 나무의 존재는
언제나 자연스레 나타난다.



지구에 잠시 몸을 의탁했다 가는 유한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나무와 인간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간 옆에 서 있을 때, 나무는 불멸성을 얻는다. 나무가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면전에서 왱왱거리다 문득 날아가 버리는 파리보다는 존재감 있고, 함께 숲에 잠겨 한 시절 보내는 동료들보다는 존재감 없는 이웃이겠지. 그에 비해 인간의 삶 속에서 나무의 자리는 훨씬 더 크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문학·신화·예술 속에는 나무들이 말 그대로 '버팀목'이 돼 포진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나무는 총 열일곱 종이다. 어떤 나무는 친숙하고 어떤 나무는 낯설다. 봄에 벚꽃 향연을 보러 벚나무 동네로 놀러 가던 우리는 자작나무 책상에 기대어 호랑가시나무가 등장하는 시를 읽는다. 마로니에의 이름을 딴 공원에서 한여름의 햇볕을 피하던 우리는 버드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호수를 꿈꾼다. 우리 삶에 오래된 소나무 숲과 유용한 사과나무 숲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렇듯 친숙하게 여기던 나무들이지만, 사실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나무와 천천히 사귀어가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준다. 아, 너는 나의 오랜 과거와도 그렇게 관계 맺고 있었구나.

서울 토박이인 내 무지도 한몫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일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벚나무를 뽑고 토착종 나무로 대체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벚꽃이 지면 바로 그 나무에 버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안 건 최근이다. 봄에 구름처럼 피어난 벚꽃을 보면서도 이후 빨갛고 실한 열매를 키우기 위해 나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 전통에서 버찌가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어린 조지 워싱턴이 하필이면 왜 벚나무에 도끼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어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시와 그림의 세계에서 하늘하늘 놀던 이야기는 곧 버찌의 의학적 효능이나 버찌 재배산업의 근황으로 미끄러진다.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까지 낱낱이 살펴보는, 나무 같은 글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가는 나무부터 찾아 읽는 것도 좋겠다. 숲을 산책하는 요령으로. 읽은 순서대로 호오好惡의 줄을 세운다면 아무래도 내게는 버드나무가 일착이다. "오랫동안 버드나무는 상실의 나무로 알려졌다.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강변 버드나무의 늘어진 가지에 하프를 매달았던 때부터 그러했다." 바빌론 강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린 시절 놀던 놀이터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던 버드나무를 기억한다. 버드나무가 슬픔을 가리키게 된 것은 귀를 기울이듯 사람을 향해 굽은 몸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잎 때문은 아니었을까. "버드나무는 어딘지 모르게 모든 사람을 울고 싶게 만드는 속성이 있는 듯하다." 그 때문일까. 옛 민요나 노래 가사 그리고 수많은 작품에서 버드나무는 사람 대신 우는 존재로 등장한다.

어떤 이는 사과나무부터 찾아볼 수도 있겠다. 오종종한 손가락에 크레파스를 쥐고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나무를 그렸다 하면 사과나무였다. 나무마다 제 이름과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를 때부터 동그랗고 빨간 과실을 구름 같은 잎사귀 한가운데 동글동글하게 그려 넣었다. "사과나무는 나무계의 알파다. 항상 모든 나무의 처음에 있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건 그런 까닭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창세기에 나온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보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금 사과를 보라. 그와 함께, 사과나무는 최첨단 기기를 상징하는 역할도 떠맡았다. 한입 베어 물은 사과의 형태는 이제 나무보다는 미끈한 기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길고 긴 이야기다. 나무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잎사귀처럼 피워 올리며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나무둥치에 주머니칼로 두 개의 이름과 하트를 새기며 영원을 맹세하는 철없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무에게서 불멸성의 위안을 받는다. 나무와 인간 사이에서 언제나 기대는 건 인간이다.

글 **박사** 북 칼럼니스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저서로 '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무튼'은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다. 위고·제철소·코난북스 세 출판사가 서로 다른 소재를 선정해 함께 펴내고 있다. 아무튼 시리즈 열아홉 번째 주제는 바로 식물. 밴드 '디어클라우드'에서 곡을 쓰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임이랑이 삶에서 도망쳐 숨고 싶었던 순간에 만난 식물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 '아무튼, 식물'(임이랑, 코난북스, 2019)을 출간했다. '흙을 만지다가 한 줄, 시든 이파리를 정리하다가 또 한 줄' 썼다는 이야기엔 저자가 식물과 만나고부터 차츰 시작된 일상의 변화가 담겨 있다. 넘치는 애정으로 화분에 물을 부어주다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던 시기를 거쳐 겨울을 이겨내고 맺힌 새순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저자의 모습은 무언가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9–2020
7월 24일 티켓오픈



변강쇠 점찍고 창극

옹녀

2019–202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개막작
2019.8.30–9.8 국립극장 달오름 화수목토일 15시 / 금 20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ntok.go.kr

국립극장 외국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National Theater of Korea
Arts Academy for Foreigner

얼-쑤 춤마구나

2019 국립극장 가을겨울
외국인국악아카데미

2019.9.2 - 11.23

8월 중 수강신청

문의

kacademy@ntok.go.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국립극장



NTOK

64
두 공기:
두고두고 회자되는 공연 기록
호화로운 올스타 캐스트
'대수양'

66
예술배움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사물놀이반

68
국립극장 소식

71
극장사람들
시설관리팀 관리실장 전상용

72
전시의 단면







공연 사진



(4292년 11월 20일 동아일보 조간)

신문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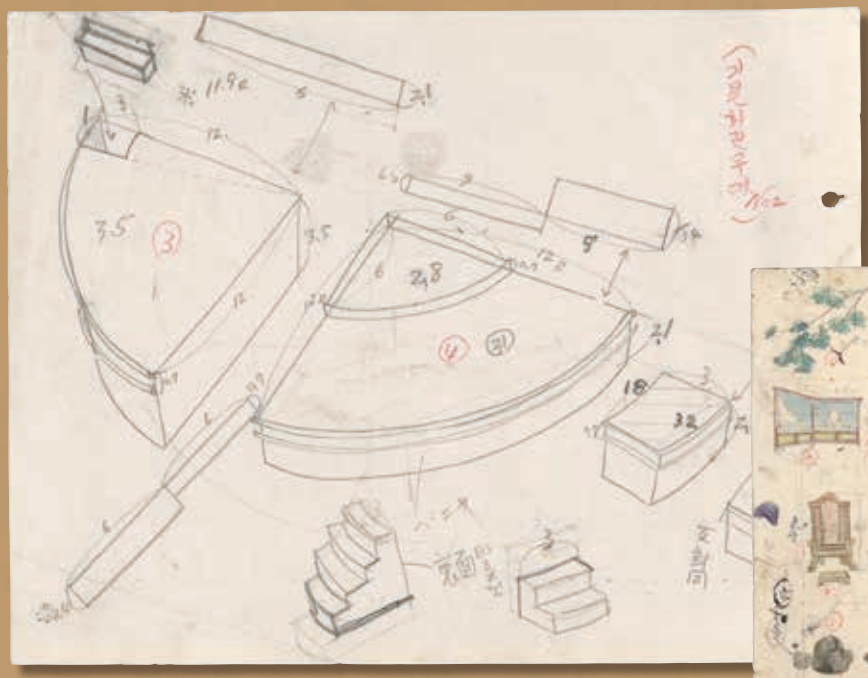


(1959년 12월 9일 水 夕刊 서울신문)

(1959년도 국립극단 첫 무료)



신문 광고



무대 디자인



호화로운 올스타 캐스트 ‘대수양’

1959년 12월 9~14일

세종대왕(변기종 분)의 두 아들 문종(강규식 분)과 수양(장민호·최무룡 분)은 대조적인 성격 때문에 사사건건 대립한다. 세종과 문종마저 세상을 떠난 뒤 수양은 어린 조카 단종(조미령·옥경희 분)을 도와 국사를 돌본다. 수양이 못마땅한 김종서(이향 분) 일파는 수양의 아우인 안평(황해 분)을 중심으로 수양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안 수양이 그들을 처단한다. 어린 단종은 숙부인 수양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수양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된다.

1959년 5월 말, 국립극장은 국립극단 해산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만다. 당시 주무부처인 문교부 차관과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극장 운영위원회는 막대한 예산 및 활동 부진, 민간 극단 예술 활동 지원 등을 이유로 국립극단 해산을 논의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비판에 부딪히자 국립극단 산하에 두 개의 전속극단(민극·신협)을 두어 쇄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 ‘대수양’은 두 전속 극단이 발족한 이후 처음 발표한 합동 공연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오랜만의 공연이기도 하지만 단원 70여 명이 등장하는 초호화 캐스팅은 관객을 극장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김승호·최무룡·박노식·허장강·최은희·노경희·주증녀 등의 영화 스타와 김동원·장민호·백성희 등 연극계 배우까지 당시 웬만한 유명 배우는 다 모인 셈이다. 당시 신문은 “악극, 신파 등 스타들이 스튜디오에 있어서의 조야하고 불연속적인 연기의 맹점을 그대로 무대에 연장하고 있는 모습이 적이 불안스러웠으나 70여 명의 대군들을 단시일 내에 조율하며 급박한 공연에 달려온 박진 연출의 노고는 크다(1959.12.16. 동아일보)”라고 평하고 있다. 이 밖에 “시종 열연한 장민호가 때로 과장된 억양이 거슬렸으나 단연 뛰어났으며 적역을 얻은 옥경희의 차분한 호연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1959.12.19. 조선일보)”라는 호평도 살펴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회전무대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극 공연에 주로 채색 위주의 사실적인 무대를 재현하던 관행과 달리 과감하게 상징적인 무대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대한 스케일 대비 신속한 장면 전환이 장점이었던 반면, 상징성 있는 장치가 아니라 단지 무대를 간소화한 인상이 앞선다는 인색한 평도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수양’은 대구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온 국립극장이 1957년 이후 관객 동원에서 최고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이는 국립극장이 안팎의 여러 비판과 갈등 속에서도 연극 개혁의 기치를 걸고 화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현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보존하고 있는 ‘대수양’ 관련 자료는 사진 17점, 무대 디자인 7점이 있다.

글 **설인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성공회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연극예술을 공부했다.

‘대수양’

일자 1959년 12월 9~14일
장소 국립극장(서울시 공관)
원작 김동인 ‘대수양’
각색 이광래
연출 박진
출연 유춘·서월영·조미령·장민호·최무룡·허장강·변기종·강규식·박동훈·박삼·전예출·김인태·황해·김승호·남춘역·송미남·진랑·함국절·천선녀·김미선·정애란·조항·박성대·김만·정국산·박영태·이향·맹만식·황화순·강창수·옥경희·송억·임생출·김동원·이해랑 외
제작 무대장치 장종선, 조명 전영 외

공연예술자료 이용안내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약 21만 점의 공연예술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ntok.go.kr)에서 누구나 쉽게 자료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공연예술자료실(방문 이용)
02-2280-5834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온라인 이용)
02-2280-5805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사물놀이반

함께 두드리며 삶을 변주하다

저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참여하는 사물놀이 수업.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장단을 나누며 목표를 향한 디딤돌을 놓는다.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이 반가운 듯 거리의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도 초여름이 주는 한낮의 나른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더운 바람을 힘껏 밀어내는 장구 소리가 들렸고,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장충체육관 정문 앞에 다다랐다. 장충체육관 지하 2층에 위치한 다목적실에서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사물놀이반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수강생 다섯 명이 바닥에 앉아 장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주에 몰두하면서도 옆 사람의 장구 소리를 놓치지 않고 같이 장단을 맞춰보기도 했다. 자연스레 하나둘 소리가 모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마저 두드리는 경쾌한 합주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사물놀이 수업은 오후 3시에 시작됐다. 수업 시작과 함께 수강생들은 구성진 추임새를 넣으며 짧게 장구를 치곤 "안녕하세요" 우렁차게 인사를 건넸다. 나이도 직업도 다 다르지만, 장구채를 잡는 순간 집중하기 위해 반짝이는 두 눈빛은 모두 닮아 있었다. 수강생들은 연습하는 동안 누군가 박자를 놓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박자 쉬어 다시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렸다. 혼자만의 완전한 연주가 아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수업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 후, 이날 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 참석한 송우주 강사가 새로운 악보를 배부했다. 그 후 시범으로 한 번 장구를 연주했을 뿐인데, 수강생들은 금세 장단을 파악해 따라서 소리를 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나 봐요. 이제 소리를 완전히 따라오고 있어요. 경직돼 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고 있네요"라며 송우주 강사가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격려하고 완벽한 연주를 이끌어냈다.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는 무용·타악·소리 부문의 국내 유수 예술가들에게 전통 예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중 국립국악관현악단원 연제호가 강사로 참여하는 사물놀이반은 총 30주 과정이며 수강생 15명과 함께하고 있다. 연제호 강사는 수강생이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인 꽹과리·장구·북·징을 이용해 삼도풍물을 배울 수 있도록 타법·호흡법·장단 구성을 강의한다. 특히 앉은반뿐만 아니라 선반까지 겸해 진정한 의미의 풍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흥미롭다. 그는 2013년 '장구반주법 설장고반' 수업으로 처음 전통예술아카데미에 참여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물놀이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꼼꼼한 지도와 짜임새 있는 수업으로 많은 수강생이 재수강을 선택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는 "악기를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몸을 활용해 연주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거기다 먼저 몸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다면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라며 다른 연주자와 합주할 때 필요한 힘과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수강생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그의 수강생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졌다.

"각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오기도 하고, 문득 반복되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터닝포인트로 이 강의를 선택하기도 하죠. 어떤 이유든 저를 선택해주신 모든 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물음표 하나를 안고 왔다면,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고 싶어요."

수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수강생들은 장구를 어깨에 메고 일어났다. 열렬한 연습에도 지친 기색 없이 흥겹게 장구를 치다, 이내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힘차게 연주하는 동시에 동료와 눈을 맞추며 찬찬히 보폭을 맞춰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송우주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오늘 오전에 공연하고 왔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땀이 더 나요.(웃음) 여러분이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감동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력을 다하게 된답니다. 어느새 연주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더욱 잘할 거예요."

사물놀이반은 16주 차 수업에 꽹과리·장구·북·징으로 악기 파트를 나눠 12월에 오를 수료 무대를 준비할 예정이다. 여러 악기가 모였을 때 이들의 연주는 얼마나 더 큰 울림을 줄까. 한여름을 앞두고 가을을 기대하는 이유다.

글 **박효린**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에디터.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는 전통 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개설돼 국내 최고 예술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3개 부문 총 8개 강좌로 구성되며 무용 부문은 윤성철(기본·입춤)·고선아(태평무)·최종실(소고춤)·조흥동(진쇠춤)·채상묵(승무) 강사가 맡고 있다. 타악 부문은 연제호(사물놀이) 강사가 진행하고, 소리 부문은 김유경(판소리A)·박애리(판소리B) 강사가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13·5823

7월의 주요 소식



국립창극단원 김미진,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명창부 대상 수상

2019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보성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에서 국립창극단원 김미진이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본선에서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불러 심사위원은 물론 관객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은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고향인 보성에서 명창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 매우 감격스럽다. 특히 보성소리 계승에 힘쓰신 고故 성창순 선생님께 배운 '심청가'로 수상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예능보유자였던 성창순 명창과의 특별한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2001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김미진은 스릴러 창극 '장화홍련'(2012·2014)의 배장화 역, 창극 '서편제'(2013)의 중년 송화 역, 국립극장 기획공연 '단테의 신곡'(2013·2014)의 베아트리체 역 등 다양한 작품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또 2016년 9월에는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무대에서 강산제 '심청가'를 선보이며 공력 있는 소리꾼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완창판소리' 공연 당시, 맑으면서도 애원성 짙은 소리가 '심청가'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활동만큼이나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계절 맞춤형 취미 찾기 프로젝트 '취미의 계절' 첫 시즌 성료

국립극장의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5월에 첫 문을 열었다. 성인 대상 일일교육 프로그램 '취미의 계절'은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들과 함께 전통 예술의 기본기를 배워보는 풍류 수업과 전통 공예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통문화를 즐겨보는 유희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매 회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계절마다 다양한 일일체험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이라 더욱 흥미롭다.



5월에 진행된 봄 프로그램에서는 국립창극단원 유태평양에게 목소리 하나로 '인싸' 되는 방법을 배워보는 풍류 수업 '인싸의 기술 feat. 판소리'와 천연 재료로 화과자 모양의 비누를 빚어 나만의 비누 화과자 세트를 만들어보는 유희 수업 '마음으로 빚는 비-누'가 진행돼 수강생에게 전통문화의 매력을 알렸다.

오는 7월에 열릴 여름 프로그램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원 김영미와 해금에 숨겨진 옛이야기를 알아보고 직접 연주까지 할 수 있는 풍류 수업 '해금, 오늘부터 1일'과 '모던 민화'를 창안해 활발히 활동 중인 민화 화가 서하나가 진행하는 유희 수업 '모던 민화: 여름나기 부채'가 개설된다.

계절마다 새로운 강좌로 찾아오는 '취미의 계절'은 7월에 이어 9·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누구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3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7월 안동 찍고 성남 공연

국립창극단이 7월 13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7월 19~20일에는 성남아트센터에서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인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공연한다.

이 작품은 전승 과정에서 유실된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전'을 바탕으로 하되, 당차게 살아가는 '옹녀'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외세 침탈과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조선 시대 여인들의 신산스러운 삶의 역사가 옹녀라는 여인에 빗대 펼쳐진다. 주인공 옹녀가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장승들과 민초들을 만나면서 조화와 화해를 향한 분쟁 조정자이자 희망을 구현하는 주인공으로 변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고선웅 극본·연출, 한승석 작창·작곡의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의미 있는 기록을 여럿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2014년 초연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기획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으며, 창극 최초로 '제8회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 극본상을 수상했고, 2016년



에는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 빌 극장에 창극 최초로 초청돼 2,800여 명의 프랑스 관객과 마주하기도 했다. 당시 테아트르 드 라 빌의 극장장이자 파리가을축제의 예술감독인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는 "음악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힘이 대단한 작품이며 유서 깊은 프랑스 문학과 극 장르에서도 코믹함과 섹슈얼리티가 이렇게나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드물다."라고 극찬했다. 녹슬지 않는 실력으로 국립창극단원들의 찰떡 앙상블을 보여주는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인기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국인국악아카데미 2019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국립극장 외국인국악아카데미는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공연예술 체험의 장이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길러주는 교양 강좌다. 2013년 시작돼 판소리·국악기 연주·한국무용 등 다양한 공연예술 수업이 이뤄져왔다. 한국어가 서툴고 전통예술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도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는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올해는 사물놀이·판소리·한국무용 세 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3~6월)는 장르별 이론 교육과 발성, 움직임 등 기초 훈련을 하는 입문 과정이 진행됐다. 오는 하반기(9~11월)는 작품을 연구하고 실제로 공연을 올리는 심화 과정이 준비된다. 하반기 수업은 8월 중순부터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부터는 과정별 우수 수강생을 선발해 극장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며, 전통예술 축제 현장 탐방 등 새로운 혜택이 더해질 예정이다.

문의 예술교육팀 02-2280-5821

국립극장,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 페스티벌 참가

국립극장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2019년 제주해비치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연극·음악·다원예술·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190여 개 문화예술 단체와 100여 개 전국 문예회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축제다. 매년 부스 전시와 공연 진행 등을 통해 공연 예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전국 문예회관과 예술 단체 간 교류의 장인 '아트마켓', 국내외 문화예술계 이슈를 주제로 한 '교류협력네트워킹',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제주인(in)페스티벌·프린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각예술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문예회관의 전시 공간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논의' '문예회관의 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등을 주제로 문화산업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세션이 마련되는 등 문화예술교육·전시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극장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비치호텔&리조트에 마련된 부스 전시에 참여해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세 전속단체의 작품을 비롯한 역점 사업을 전국의 문화예술 기관 및 관계자에게 소개했다. 국립극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아트마켓 참가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국내외 공연 예술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립현대무용단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2019.
7.19 — 7.21

금 8PM 토·일 3PM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레퍼토리 코바
신작 쌍쌍



SSANG

SSANG

쌍쌍

픽업스테이지

마르코스 모라우 안무

시설관리팀 관리실장 전상용

국립극장을 지키는 밝은 미소

**"우리가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죠."**



이른 아침 국립극장에 들어서면 리모델링이 한창인 해오름극장을 시작으로 별오름극장 초입의 경비 초소까지 출근하는 직·단원들에게 일일이 손 인사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멋들어진 모자를 쓰고 밝은 미소까지 장착한 이들은 스스로를 '국립극장의 꽃'이라 말하는 경비실 직원들이다. 그들이 꽃이 된 배경에는 시설관리팀 관리실장 전상용 씨가 있다.

"일선에서 관객과 대면하는 경비실 분위기에 따라 국립극장의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극장의 꽃이다. 그러니 언제나 밝은 미소와 친절로 응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관리실장 전상용 씨는 본래 오랜 기간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금융맨이다. 그러던 그가 극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건 약 20년 전부터다. 처음 10년은 국립국악원에서 경비실장으로 근무했고 그 뒤 6년은 하우스 매니저로 일하며 관객 서비스와 직원 교육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퇴사한 지 꼭 1년 만에 국립극장에 입사했다. 관리실장직을 맡아 경비실·미화실을 총괄하게 된 그는 은행원에서 하우스 매니저까지, 긴 시간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기질을 발휘해 실천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매월 두 번씩 두 시간에 걸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정문 초소에 270여 대의 직·단원 차량 번호를 붙이고 외우며 방문객 대응 매뉴얼을 개선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최근 몇 년 사이 방문객 대응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입·출차 안내다. 해오름극장 공연과 같이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이면, 경비실 전원이 공연 전후에 극장에 출입하는 관객 안내를 위해 총력을 다함에도 출차 입구가 한 곳뿐인 데다 남산을 오르내리는 버스의 통로가 입구와 맞물려 있어, 출차하려고 30분을 차에서 기다렸다며 항의하는 관객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지금은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으로 출차가 어려울 만큼 인파가 몰리는 경우는 없지만 지하 주차장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사전 안내를 진행해 극장을 방문하는 관객 대부분은 주차가 어렵다는 걸 알고 오세요. 방문 전에 문의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그 외에 남산 주차장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국립극장 입구가 나온다며 극장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면 케이블카 탑승구 방면 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기도 해요. 앞으로 지하 주차장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면 출차 구역이 한 곳 더 만들어질 테니 입·출차 문제는 개설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극장 내 서비스 교육과 오물 처리·제초·제설 작업 등의 미화, 관람객 안전 및 주차 질서 유지만 수행하기에도 넘치는 일일 테지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국립극장 지킴이를 넘어 남산 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부단한 노력 덕분인지 용역직이던 경비실과 미화실의 고용 형태가 올해 1월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돼 한층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년을 보장받고 진정한 의미의 국립극장 사람으로 일하게 됐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그만큼 더욱 성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오름극장이 재개관하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야죠. 나아가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게 제 목표예요."

외국에 나가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가 스스로를 그리고 경비실 모든 직원을 '꽃'이라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립극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만족스러운 공연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국립극장의 꽃으로부터 경험한 친절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글 **김보나** | 사진 **전강인**



전시의 단면

'오셀로(무어랑)'의 말

1996년, 국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오셀로(무어랑)'에
실물 크기에 가까운 말 모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폭 0.7미터, 길이 2.6미터, 높이 2.2미터로 제작된, 무대디자이너 윤정섭의 작품이다.
현재 이 말은 공연예술박물관 상설전시실 입구에 전시돼 있다.
상설전시실 개관을 준비할 때 전시실 도입부에 설치할 전시물을 찾느라
애를 태운 기억이 있다. 도입부는 계단으로 돼 있어 관람객의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구조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전시물을 설치해야 했다.
수집된 자료 중에는 적당한 것이 없어 고심하던 중 당시 무대미술팀장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제안했다. 보자마자 한눈에 '찾았다!'라고 안도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수집된 '오셀로(무어랑)'의 말은 2009년 12월 초,
공연예술박물관의 개관을 목전에 두고 상설전시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설치,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전시물이 됐다.

글 **하을란**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 **전강인**

※'전시의 단면'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상설전시실에 전시된 유물을 소개합니다.



2017년 여우樂락 페스티벌 '공명'

독자엽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9.12.3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40370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 □ □

※국립극장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예 □ 아니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월간「미르」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요청 시까지 유지됩니다.

국립극장 미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미르」담당자 앞

0	4	6	2	1



2019년 7월 '오브제'

7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 등 선물을 드립니다.

---

01 「미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02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3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9–2020
7월 중 티켓오픈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ntok.go.kr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